

PwC Korea

Insight Research

Global M&A Industry Insights

글로벌 산업별 M&A 인사이트

삼일PwC경영연구원

March 2022



pwc

Contents

1. Executive Summary	3
2. M&A 트렌드	7
3. 산업별 M&A Insights	13
금융 산업 M&A	14
소비재 산업 M&A	20
제조 및 자동차 산업 M&A	29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 산업 M&A	32
제약 및 의료 산업 M&A	40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 M&A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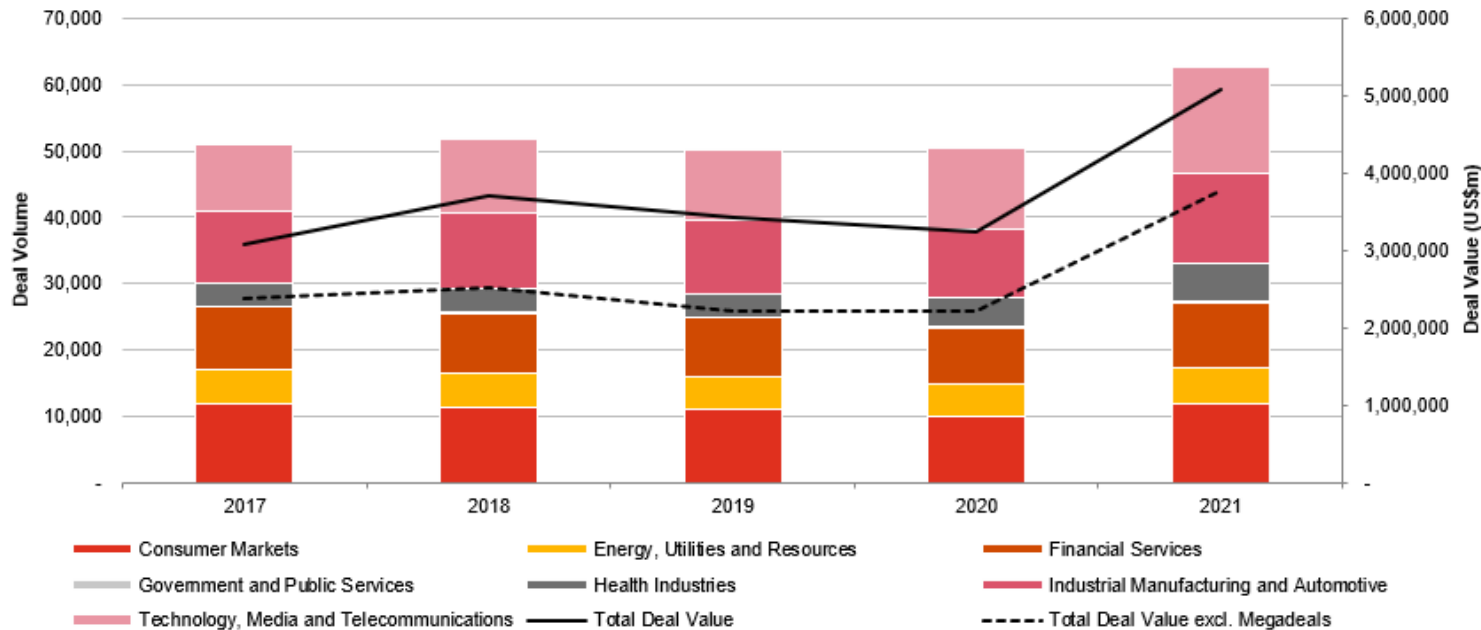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1



2021년, 역대 최고의 M&A를 기록한 한해, 2020년 대비 거래건수 기준 24% 성장, 거래금액 기준 57% 성장

글로벌 M&A 거래 건수 및 금액, 2017 - 2021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1) EMEA : 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 2021년 전 세계 M&A 거래건수는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6만 2천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130개의 메가 딜 (거래금액 기준 50억 달러 이상의 M&A)을 포함, 역대 최고치인 5조 1000억 달러를 기록해, 2020년에 비해 무려 57%나 증가하여 2007년에 세워진 종전 최고치인 4조 2000억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M&A를 기록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거래건수 기준으로 유럽 등 (EMEA^(*1)) 지역 M&A가 3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미주 지역 M&A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였다.
- 전 산업에 걸쳐 기업들의 기술 인수와 사업모델의 전환과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 M&A 시장에서 테크놀로지 관련 M&A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중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M&A, 부정적인 대외 변수에도 전망은 낙관적

- 2022년 M&A 역시, 풍부한 대기 매물, 높은 시장 유동성 그리고 디지털과 첨단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딜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1년과 비교해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규제완화, 낮은 금리, 주식시장의 호황 등 긍정적인 대외 여건이 2021년 M&A 시장 활황에 크게 기여를 하였지만, 이러한 대외 여건들이 2022년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높은 변동성이 감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및 재정 부채 증가와 함께 바이러스 변종의 등장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추가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인수자

포트폴리오 재편

- 디지털 역량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추진
- 고성장 영역에의 재투자를 위한 비핵심자산의 매각과 사업부 분할
- 디지털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로의 전략적 전환이 M&A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모펀드

사상 최고의 자금 조달로 풍부한 드라이 파우더 확보

- 금리인상, 거래배수의 상승과 ESG로 인하여 가치창출에 대한 압박이 거세져
- 사상 최고의 2.3조 달러 드라이파우더 확보
- 높아진 M&A 시장 참여 비중
 - 거래건수 기준, 직전 5년 평균 약 25% 대비 40%까지 크게 증가
 - 거래금액 기준, 직전 5년 평균 약 30% 대비 45%로 증가

특수 목적 인수 회사 (SPAC)

2021년 말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IPO

-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다소 주춤해 졌으나, 500여 개의 SPAC이 여전히 공격적으로 인수 매물 탐색 중
- 향후 2년간 풍부한 자금을 무기로 한 SPAC의 공격적 인수 행보가 거래배수를 계속 활성화 시키게 될 것.

전 산업에 걸쳐 M&A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가운데, M&A 영향 요인과 정도는 산업별 차이

산업	산업별 전망	주요 테마	Hot Spots
소비재 산업 (Consumer Markets, CM) 소비재, 유통, 제지, 운송, 여행 및 숙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사업모델 및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2022년 M&A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사업부 매각 및 분할 • 공급망 및 운송 • 온라인 / 이커머스 	홈인테리어 등의 생활가정, 반려동물, 애슬리저, 헬스 및 뷰티, 식료품, 게임, 여행 관련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 산업 (Energy, Utilities & Resources, EUR) 에너지, 유틸리티, 화학, 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어젠다, EUR 기업 전략의 중심에 위치 •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신규 시장 진입의 방안으로 M&A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 원자재 가격, 유동성, 공급망 이슈 등 대외적 여건 	신재생, 탄소포집, 배터리 저장, 수소에너지, 전력배송인프라, 전략자원
금융 산업 (Financial Services, FS) 자산운용, 은행 및 자본시장,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이 내재화되면서 산업 변혁의 가속화 • 부실자산 처분 사이클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및 기술 • 임베디드 금융 • ESG / 지속가능 금융 • 구조조정형 M&A 	핀테크, 결제, 인슈어테크, PB/자산관리
제약 및 의료 산업 (Health Industries, HI) 제약 및 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세 지속에 따른 높은 가치평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최적화 • 환자 경험의 디지털화 • ESG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차세대 치료제, OTC, 원격진료, 헬스테크, 데이터
제조 및 자동차 산업 (Industrial Manufacturing & Automotive, IMA) 항공 및 방산, 자동차, 건설 및 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포트폴리오 재편 및 ESG 가 산업내 장기적 가치창출에 필수적인 요소 • 2022년에도 M&A 시장은 강세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 • 원자재 가격 • 유동성이 풍부한 PE & SPACs • ESG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연료, 자동화, IoT
테크, 미디어 및 통신 산업 (Technology, Media & Telecom, TMT) 미디어, 엔터, 통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시장 기회, 기술의 융합, 풍부한 유동성으로 TMT 산업의 M&A 활황 지속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융합과 심화 • 경쟁구도 • 유동성 	에너지 저장, 헬스테크, 핀테크, 메타버스, 가상화폐, I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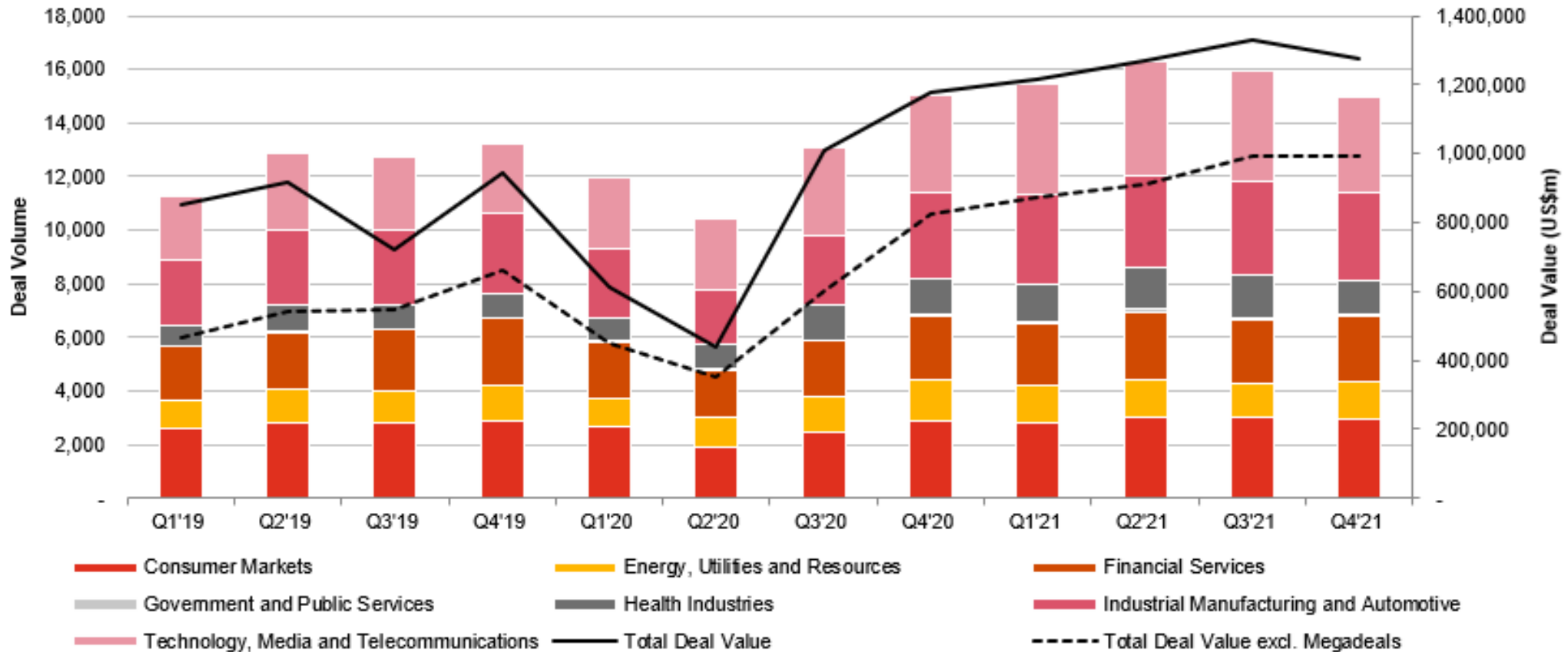
M&A 트렌드

2



M&A 거래는 지난 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8개월 동안 매 분기별 1조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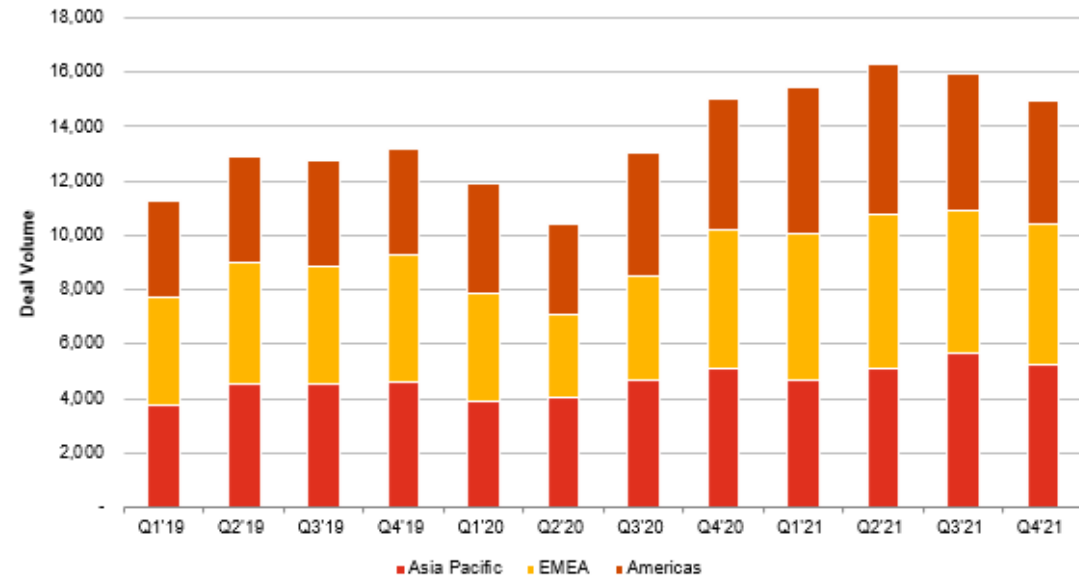
글로벌 M&A 거래 건수 및 금액, 2019 - 2021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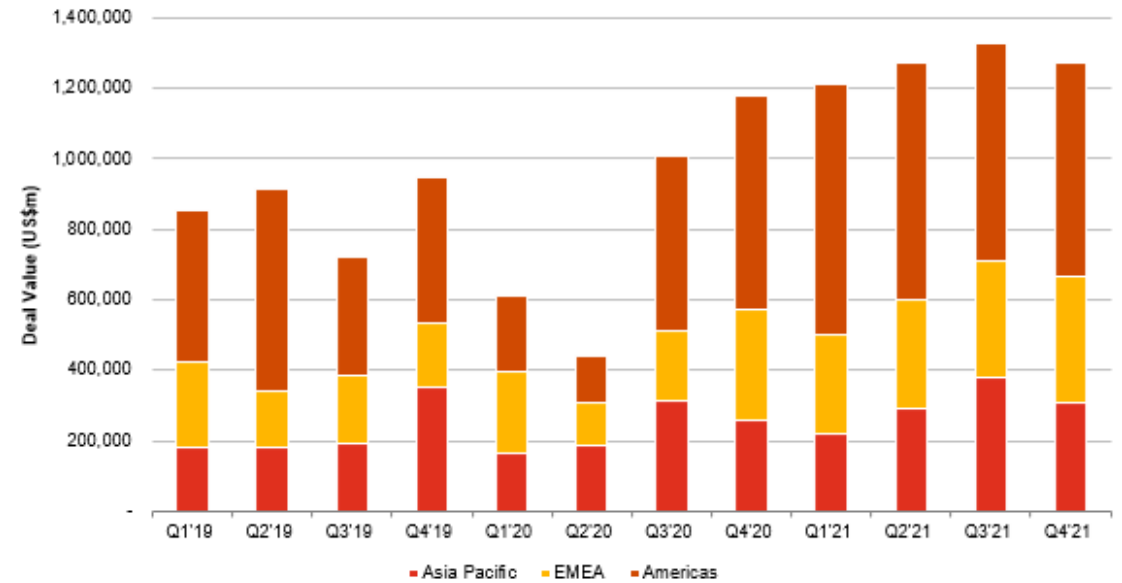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지난 3년간 M&A 거래 건수 기준으로 아시아, 유럽, 미국 지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미주 지역이 높은 비중 차지

지역별 글로벌 M&A 거래건수, 2019-2021 분기별





지역별 글로벌 M&A 거래금액, 2019-2021 분기별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1년 최대 M&A 거래는 653억 달러 규모의 디스커버리와 워너미디어의 합병 거래, 상위 10건의 거래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산업 측면에서는 테크 비중이 높음

Top 10 Global Deals, 2021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Warner Media LLC	 Discovery Inc	Corporate		65.3
2	 Grab Holdings Inc	 Altimeter Growth Corp	SPAC		34.3
3	 MSP Recovery LLC	 Lionheart Acquisition Corp II	SPAC		32.5
4	 GE Capital Aviation Services Inc	 Aercaip Holdings NV	Corporate		31.2
5	 Kansas City Southern	 Canadian National Railway Co	Corporate		31.2
6	 Medline Inc	 Blackstone Group & Investor Group	PE		30.0
7	 Cerner Corp	 Oracle Corp	Corporate		28.2
8	 Afterpay Ltd	 Square Inc	Corporate		27.7
9	 Shaw Communications Inc	 Rogers Communications Inc	Corporate		21.9
10	 PPL WPD Investments Ltd	 National Grid PLC	Corporate		20.1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풍부한 유동성이 인수자 간 경쟁적인 M&A 시장 조성에 기여

Capital Availability



Private Equity and Private Markets Funding: 2021년말 사모펀드의 드라이파우더는 2010년 수준에서 2배 증가한 2.3조 달러에 이릅니다



IPOs & SPACs: 전통적 IPO와 특수목적 인수회사(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IPO 모두 2021년 초 급증. 2021년 하반기 SPAC의 IPO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향후 2년간 500여 개의 SPAC이 사모펀드와 기업 인수자와 함께 치열한 인수 경쟁에 나서게 될 것



Corporate Cash: 유동성 확보와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업의 정책 - 부채증가, 배당금 지출 감소, 운영의 최적화를 통한 수익 증가 -으로 기업의 보유현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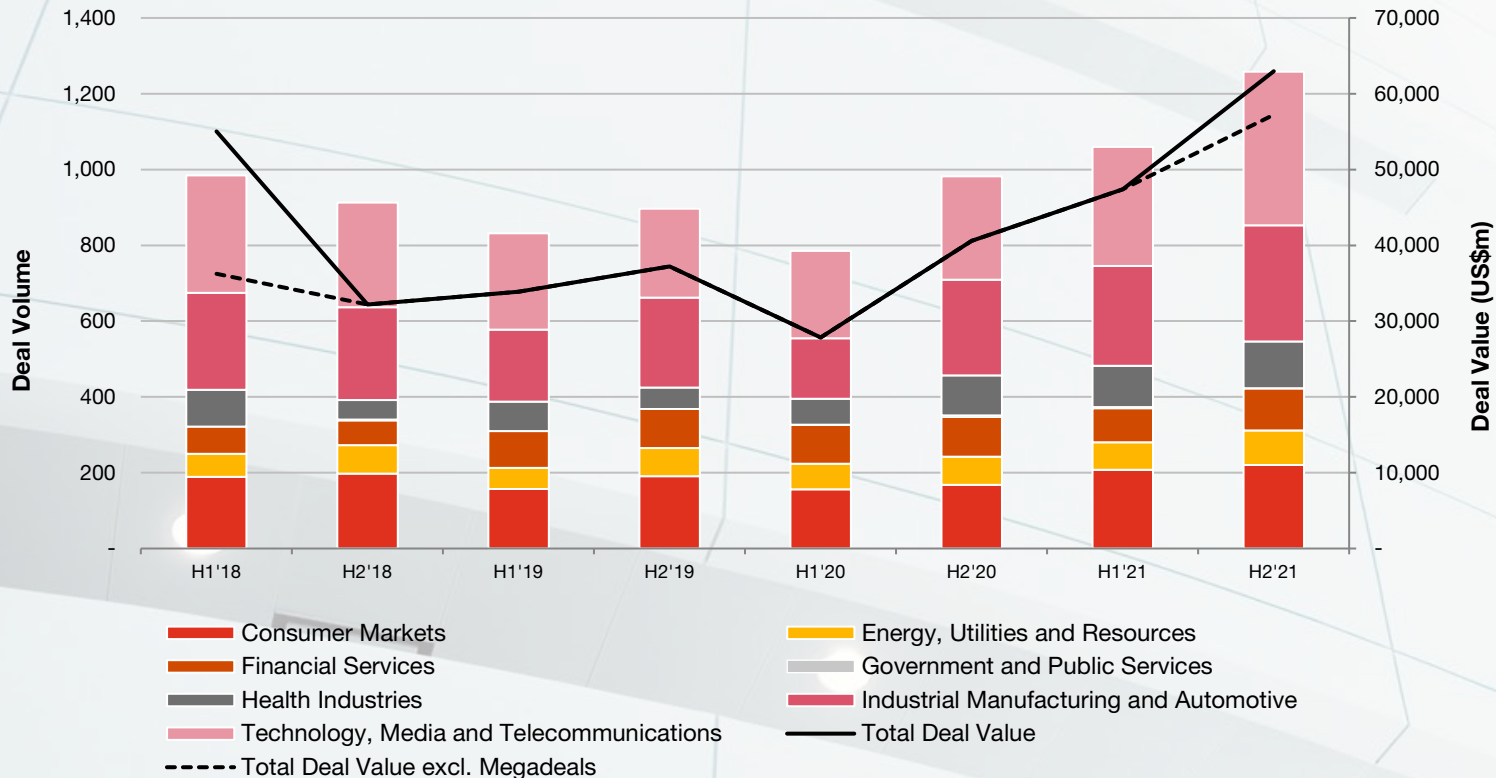
Interest rates remain relatively low: 최근 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 과거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그러나, 일부 인수자들과 높은 부채 기업들에게 금리상승은 M&A 자금 조달에 부담



Valuations: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디지털화, 그리고 기술역량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산의 고평가로 이어진 반면, COVID-19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특정 산업 분야나 ESG와 같은 요소들이 사업모델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사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저평가 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한국 M&A 시장은 작년에 사상 최대의 132조원에 달하는 M&A가 이루어진 가운데,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에서 M&A가 가장 활발

한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2018 - 2021 반기별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1) USD 1 = KRW1,200


(*2) 본 M&A 데이터는 Target 국가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므로 SK의 인텔랜드사업부 인수 거래건은 미국 M&A 거래건으로 분류되었음.

(*3) 한국법인과 함께 뉴질랜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등 포함 금액

- 작년 한해 한국 M&A는 거래건수로는 2,318건, 거래금액 기준으로 132조원(*1) (USD110,379 m)의 M&A가 이루어졌다.
- COVID-19의 여파로 2020년 상반기에 주춤하던 M&A가 2020년 하반기에 다시 COVID-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면서 2021년 M&A는 전년 대비 거래건수 기준으로 31%, 거래금액 기준으로 61% 성장하여 한국의 M&A는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의 M&A 비중이 가장 높아서, 거래건수로는 719건, 거래금액으로는 33조 7천억원(USD 28,058m)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 한국 관련 M&A로는 Cross border M&A 건으로 SK의 인텔 랜드 사업부(거래금액 90억 달러) 인수 거래(*2)가 있으며, 한국에서 이루어진 최대 M&A는 미국 시그나그룹이 한국의 라이나 생명(*3)을 미국 처브그룹에 6조 9천억원(USD 5,750m)에 매각한 것이다.

2021년 한국 Top 10 M&A

국내
M&A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라이나 생명	 미국 처브 그룹	Cross border/ Corporate		5.8 
2	 이베이 코리아	 이마트 컨소시엄	Corporate		3.0 
3	 대우건설	투자자 그룹	PE		1.8 
4	 하이퍼커넥트	 미국 매치 그룹	Corporate		1.7 
5	 야놀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Cross border/PE		1.7 
6	 매그나칩반도체	투자자 그룹	Cross border/PE		1.7 
7	 휴젤	 GS/Affinity/Permira 컨소시엄	Cross border/PE		1.5 
8	 롯데월드타워 앤 몰	 롯데물산	Corporate		1.2 
9	 한샘	 IMM PE / 롯데 컨소시엄	PE		1.2 
10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메디신	Corporate		1.0 

(*) 발표기준, Target 위치 지역기준

 기술, 미디어 및 통신
  금융 서비스
  의료 산업
  소비자 산업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
  산업 제조 및 자동차



산업별 M&A Insights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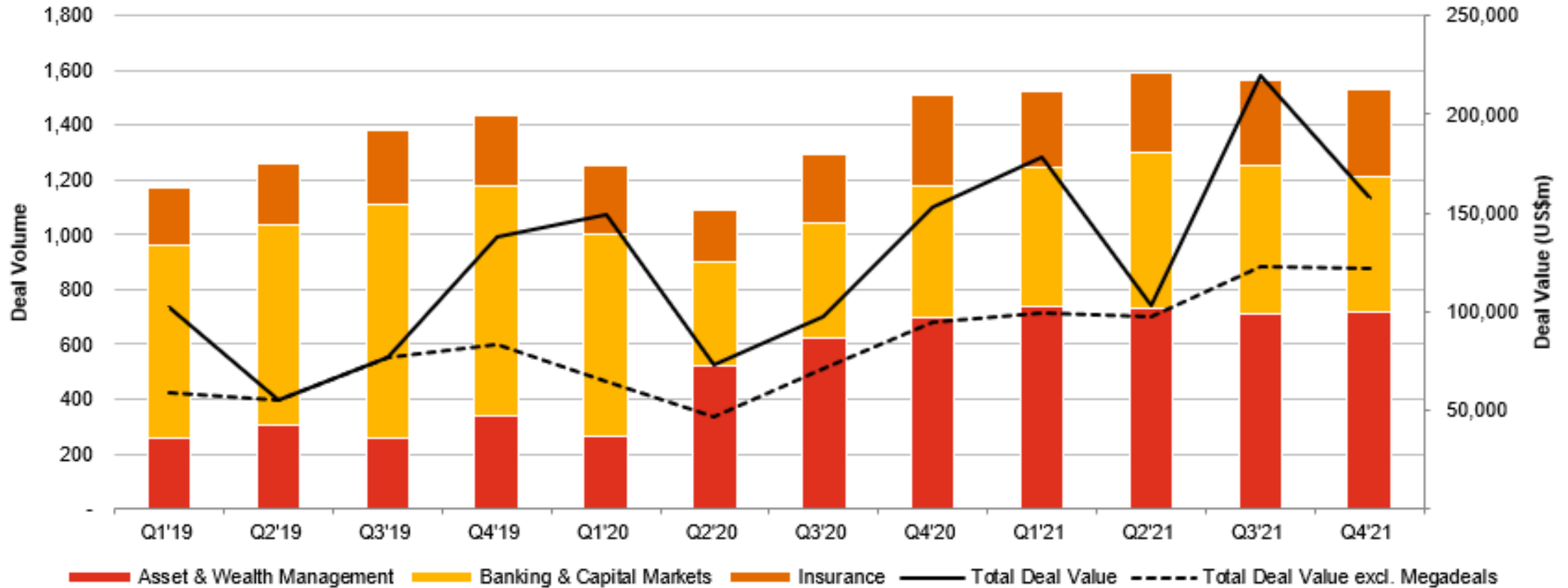
금융 산업 M&A

Financial Services Industry, FS



2021년 하반기 메가 딜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 산업의 M&A는 COVID-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 특히, 자산운용사 M&A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글로벌 금융 산업 M&A 거래건수 및 거래 금액, 2019-2021 분기별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e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 information)

2021년 글로벌 금융 산업 Top 10 M&A



Top 10 Global Financial Services Deals, 2021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MSP Recovery LLC	Lionheart Acquisition Corp II	SPAC		32.5
2	GE Capital Aviation Services Inc	AerCap Holdings NV	Corporate		31.2
3	Afterpay Ltd	Square Inc	Corporate		27.7
4	Bank of the West Inc	BMO Harris Bank NA (Bank of Montreal)	Corporate		18.4
5	eToro Group Ltd	Fintech Acquisition Corp V	SPAC		10.4
6	PartnerRe Ltd	Covea SGAM	Corporate		9.0
7	Retail SME & Asset Finance business of Ulster Bank Ltd	Permanent tsb PLC	Corporate		8.6
8	Bullish Inc	Far Peak Acquisition Corp	SPAC		8.1
9	MUFG Union Bank NA	US Bancorp	Corporate		8.0
10	Athene Holding Ltd	Apollo Global Management Inc	PE		7.7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e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 information)



Insurance



Banking &
Capital Markets



Asset & Wealth
Management

금융 산업 M&A Outlook

산업 내 빠른 변화와 부실 자산 매각으로 2022년 글로벌 금융 산업의 M&A는 낙관세 지속 전망

- 금리 인상, 규제 강화, 다양한 플랫폼과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 지속적인 디지털화 등으로 금융 산업은 그 어느때 보다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금융 기업들은 M&A를 통한 대전환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 테크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우위 확보 목적의 M&A
 - 비용구조 최적화, 수익 확대, 그리고 효율성과 마진 증대를 위한 인수와 사업부 매각.
 -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 합병, 그리고 부실자산 매각

2022년 금융 산업 M&A Hot Spots

Private equity

- 충분한 실탄을 갖춘 전 세계 사모펀드는 생명보험, 연금 및 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금융서비스 영역에서 인수를 추진하게 될 것.
- 특히, 실물경제에 대한 팬데믹 영향이 본격적으로 금융사들의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부실자산 전문 펀드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Divestitures

- 작년 대형 금융사들은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무수익 또는 비핵심 자산을 잠재적 매각 대상으로 분류. 대형 금융사들의 이러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은 2022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
- 이미 시장에 중소 부실 금융 자산이 매물로 출회되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금융사들의 비핵심 자산 매각은 본격화 될 것.

Fintech

- 결제, 예금 및 대출 플랫폼 영역에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
- 또한,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 인슈어테크, 금융서비스 테크 등의 분야도 인수자들의 주목을 받는 매력적인 매물.

금융 산업의 주요 M&A 테마

디지털 전환 및 테크놀로지



-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들 역시 테크놀로지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산업 진출에 맞서 시장 우위를 유지하려는 금융사들에게는 테크놀로지는 금융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 사이버보안, 운영적 효율성, 신속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의 실행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M&A와 전략적 연합이 증가될 전망이다.

임베디드 금융



- 금융 서비스를 사업모델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임베디드 금융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 Apple, Google 및 Amazon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서비스로 사업으로의 확장과 Walmart 및 Ikea 등 소매 유통기업들 역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과 인수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 카드 및 결제 분야 금융사들은 BNPL(Buy Now, Pay Later) 분야에서 M&A 를 통해 역량과 경쟁력 확보 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SG



- 자산운용섹터는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시장 요구 증가에 따라 ESG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이제 보험과 은행 섹터 역시 탈탄소화 전환에 따른 금융인프라를 제공하면서 ESG에 있어서 비중 있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융 산업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와 가치창출의 개념이 재정립되면서 ESG 관련 매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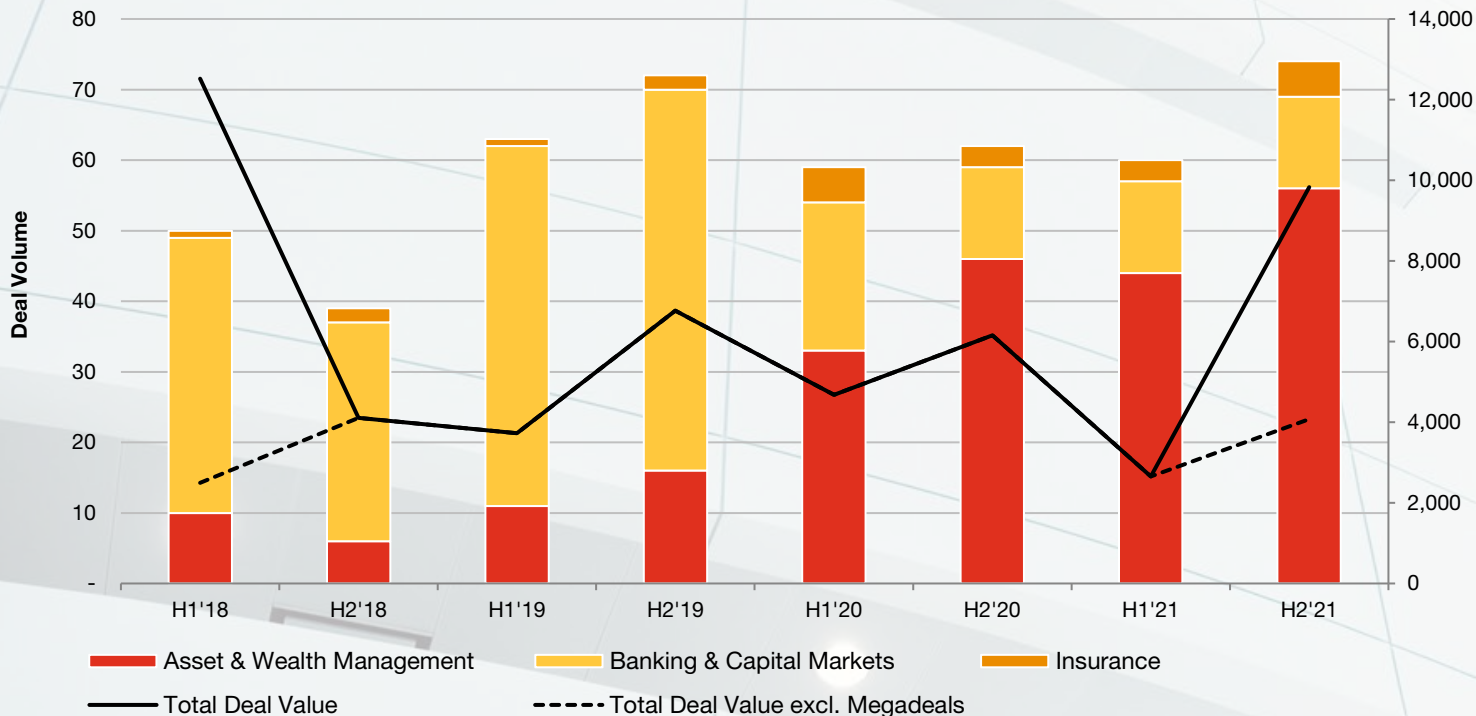
구조조정 형 M&A



- 대외 거시 변수의 변동성과 정부지원정책의 종료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할 전망이다.
- 자산 최적화 및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실채권 매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수자산전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 지역 내 핵심자산 운영에 집중하게 되면서 비핵심자산과 무수익 자산에 대한 매각 역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 금융 산업의 M&A 시장은 작년에 15조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가운데, 비 은행권 M&A 비중 증가

한국 금융 산업 M&A 거래건수 및 거래 금액, 2018 - 2021 반기별



- 작년 한해 한국의 금융 산업 M&A(*)는 거래건수로는 134건, 거래금액 기준으로 약 15조원(USD 12,486m)대의 M&A가 이루어졌다.
- COVID-19의 여파로 2020년 주춤하던 M&A가 2021년 하반기에 비 은행권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2021년 M&A는 전년 대비 거래건수 기준으로 11%,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15%로 다소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발표된 미국 처브 그룹이 USD 5,750m(약 6조 9천억원)에 라이나 생명을 인수하는 메가 딜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 작년 금융 산업의 M&A는 대형 M&A는 없으며 주로 중소형 딜과 어피니티가 보유한 현대카드 Minority 지분의 매각 등 Minority 투자 위주로 이루어졌다.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 본 데이터에는 Real Estate 관련 거래가 제외되어 있음.
USD 1 = KRW 1,200



기성 금융권, 내실화 집중

- 지난 5년간 한국의 금융 산업 M&A의 한 축은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려는 금융지주들의 활발한 M&A 활동이었다. KB금융지주는 LIG손해보험 (2015년, 6450억원)과 현대증권 (2016년, 1조 2500억원), 그리고 푸르덴셜생명(2020년, 2.3조 원)을 인수하면서 보험과 증권으로 영역을 다변화 하였으며, 신한금융지주는 오렌지라이프(2019년, 2.3조 원)를 인수하여 보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아주캐피탈 (2020년, 5724억원)과 더케이 손해보험 (2020년, 770억원) 을 각각 인수하였다.
- 이에 따라, 2022년은 다수의 M&A를 통해서 비 은행 영역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성공한 금융지주사들이 인수한 기업들의 내실화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M&A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기술 중심으로 관심 영역 확대

- M&A를 통한 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과 확장이 본격화 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2018년, 400억원)을 인수하고,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LG U+의 PG사업부(2019년, 3,650억원)를 인수하여 금융 산업에 진출하는 한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기성 금융권내의 사업 모델에 핀테크와 기술이 내재화 되고 다양한 금융 플랫폼과 금융 테크의 부상에 따라 핀테크와 기술 중심으로 관심 영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술 벤처들의 규모 확대에 따라 투자와 M&A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NPL 매각

- 공급측면에서는 ① 단기간내 급격한 금리 상승, ② 물가상승율로 인한 추가 금리인상 압력 지속, ③3월을 기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의 일몰 예정으로 NPL 물량은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자산가격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력을 기반으로 대환 등을 활용하여 부실발생율이 급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원리금상환유예 일몰 후 예정하고 있는 대책 등을 고려하면, 공급 증가 효과는 2022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요측면에서는, 담보부 NPL의 경우 UAMCO를 비롯한 기존 시장 참여자들 이외에 신규 참여자와 주요 전문 자산운용사들의 인수 경쟁으로 seller우위의 시장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 M&A



- 2021년 은행의 여신 규모 성장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개선 및 비은행 사업 이익 증가 등으로 금융지주 순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 국내에서 비은행 사업 강화는 우리금융지주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 가능성이 예상된다.
- 2022년 금융지주들의 주요 화두는 디지털과 글로벌 및 비은행 사업 강화가 될 것임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가능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M&A 검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



- 2021년 국내 보험사 M&A 시장은 “외국계 보험사의 한국 보험시장 철수”가 주요 이슈였으며,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외국계 보험사의 한국 시장 철수는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일부 중소형 보험사 중심으로 매물화 및 자본확충의 성공 가능성이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증권사



-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이 지속적으로 잠재 매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긴축 시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등 증권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점은 증권사 평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또한, 2022년초 증시 실적 부진으로 인한 증권사 실적의 악화 가능성도 증권사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 저축은행중앙회는 감독당국에 저축은행간 M&A 규제 개선, 대출규제 대응 등 저축은행 관련 규제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에도 저축은행들은 디지털 뱅킹에 대한 투자 확대, 웹뱅킹서비스, 미니뱅킹 서비스 구축 등 디지털 전환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에 진행되었던 일부 저축은행들의 매각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실패한 상황으로, 금융당국이 대주주 심사 주요 기준인 출지능력/재무건전성/위법이력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당분간 저축은행 M&A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재 산업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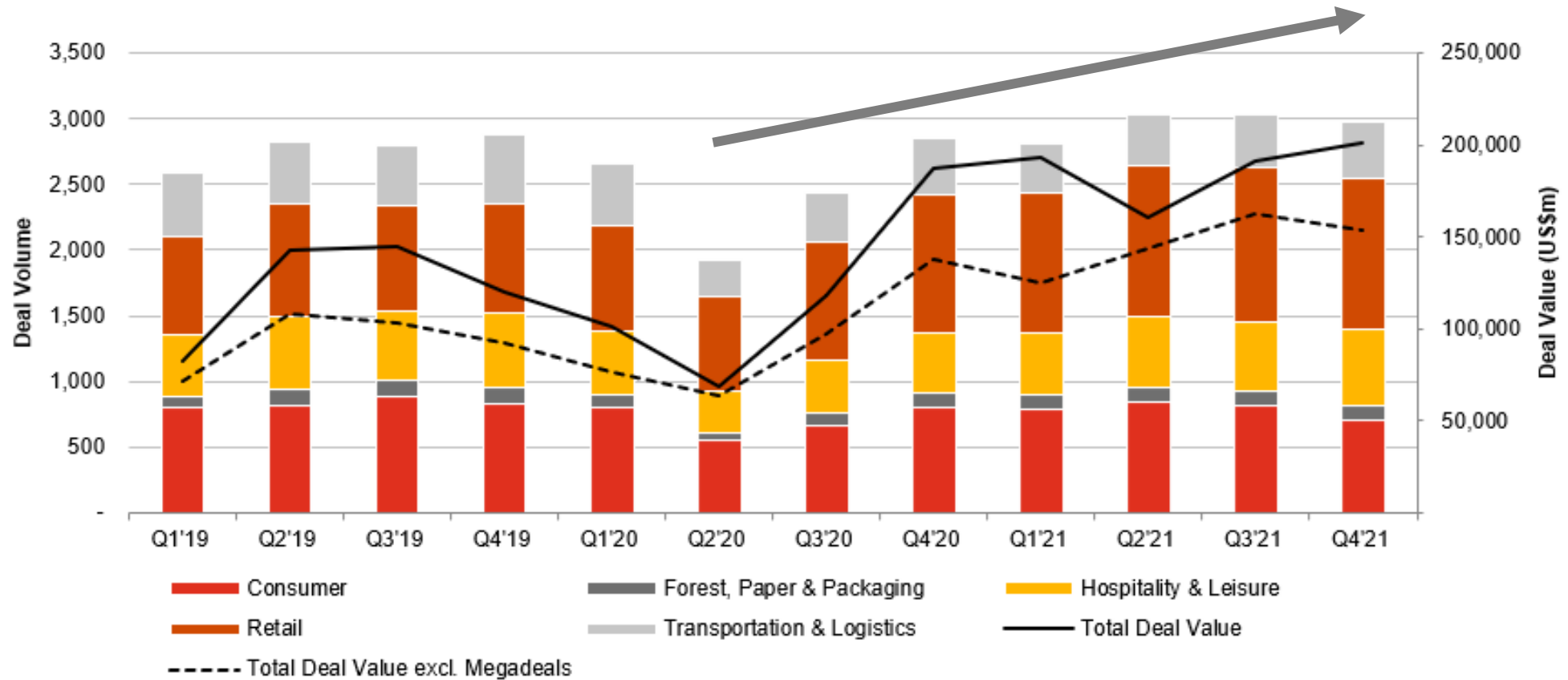
Consumer Markets, CM



메가딜 거래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소비재 산업의 M&A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57% 증가. 특히 사모펀드 참여 거래가 거래금액 기준으로 47%에 달할 만큼 소비재 산업에 있어서 2021년은 사모펀드의 역할이 큰 한해로 기록

글로벌 소비재 산업 M&A 거래건수 및 거래 금액, 2019-2021 분기별

전년대비 2021년 거래건수 기준 20% 성장, 거래금액 기준 57% 성장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e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 information)

2021년 글로벌 소비자재 산업 Top 10 M&A



Top 10 Global Consumer Markets Deals, 2021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Grab Holdings Inc (*)	Altimeter Growth Corp	SPAC	Retail	34.3
2	Kansas City Southern	Canadian National Railway Co	Corporate	Transportation & Logistics	31.2
3	Sydney Airport Holdings Pty Ltd	Investor Group (AustralianSuper Pty Ltd, IFM Investors,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 others)	PE	Transportation & Logistics	17.4
4	Wm Morrison Supermarkets Plc	Clayton Dubilier & Rice	PE	Retail	9.4
5	Ardagh Metal Packaging SA	Gores Holdings V	SPAC	Forest Paper & Packaging	9.3
6	Antalya Airport Concession	Investor Group (Fraport AG and TAV Havalimanlari Holding AS)	Corporate	Transportation & Logistics	8.2
7	PT Tokopedia	PT Aplikasi Karya Anak Bangsa (GoJek)	Corporate	Retail	7.6
8	Bollore Africa Logistics SAS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Corporate	Transportation & Logistics	6.4
9	Lottery Business of Scientific Games Corp	Brookfield Business Partners LP	PE	Consumer Products	6.1
10	ICA Gruppen AB	Murgrona Holding AB	Corporate	Retail	5.8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e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 information)

(*) 그랩 홀딩스(Grab Holdings Inc)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테크놀로지 회사이지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차량 공유 뿐만 아니라, 음식배달 및 디지털 결제 서비스이므로 소비자재 산업으로 분류하였음.



Forest Paper & Packaging



Retail



Transportation & Logistics



Consumer Products



Hospitality & Leisure

소비재 산업 M&A Outlook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기업들은 사업모델의 변화와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2022년에도 활발한 M&A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백신접종을 상승과 소비자 지출 증가에 따라 소비재 산업에서의 M&A는 2022년에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
- COVID-19 이후 변화된 일상 생활과 업무 방식이 소비지출 품목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소비재 시장에 대한 사모펀드의 높은 관심으로 M&A 시장이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 COVID-19에 따른 제약이 완화되면서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되어 소비 심리가 돌아오고는 있지만, 새로운 변종 출현에 따른 중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불안은 계속되면서 소비재 기업의 경영 환경은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



소비재 산업 M&A Hotspots (1 of 2)

홈인테리어 등 가정생활용품

- 소비자들이 팬데믹 동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구나 홈인테리어, 캠핑 및 조경제품과 같은 가정용 생활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COVID-19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근무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홈 오피스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관련 딜 사례 : Assa Abloy가 Spectrum Brands 그룹의 Hardware and Home Improvement 사업부를 인수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IMM이 1조4천억원에 한샘을 인수한 바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2022년 소비재 산업에서 주목할 M&A 분야이다.
- 관련 딜 사례 : KKR이 뉴질랜드 프리미엄 반려동물 식품 제조회사인 Natural Pet Food Group을 인수한 바 있다.

캐주얼웨어 및 애슬레저

- 패션 섹터에서는 애슬레저 등의 캐주얼웨어 분야가 기업인수자와 사모펀드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다.
-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편하고 가벼운 복장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레저활동이 회복하게 되면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패션 분야에 대한 M&A 가 증가할 전망

미용 및 건강제품 (온라인 유통을 중심으로)

-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지역적으로 시장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M&A가 활용되고 있다..
- 또한, 색조제품으로 회귀하는 화장품 소비 트렌드가 2022년에 M&A 틈새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관련 딜 사례 :
 - 화장품 편집숍으로 유명한 Sephora가 영국 프리미엄 화장품 유통사인 Feelunique를 인수
 - 록시땅이 미국 Sol de Janeiro를 인수

소비재 산업 M&A Hotspots (2 of 2)

메타버스

- 메타버스의 활용으로 소비재 시장 판도의 변화 가능성 존재
- 가상 쇼룸 및 패션쇼 등이 제품 판매 증가로 이어질 잠재적 가능성이 보여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제품에 대한 실험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항공사 및 항공 여행

- 정부 지원의 단계적 중단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 여행 부문은 구조조정형 M&A 대상이 될 가능성
- COVID-19의 종료로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항공여행을 중심으로 여행분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회복이 M&A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호텔 및 레저

-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인 호텔 및 레저는 이동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나타나는 회복 조짐이 M&A로 이어지는 추세
- 카지노, 호텔 및 기타 관광 관련 분야에서 2022년 활발한 M&A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관련 딜 사례: 최근 MGM의 The Cosmopolitan of Las Vegas 인수 발표, Hard Rock의 Las Vegas Mirage 자산 및 필리핀 게임 리조트 운영업체인 Okada Manila의 SPAC 합병 계획 등



소비재 산업의 M&A 주요 테마 (1/2)

사업부 분할 및 매각

-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소비재 대기업 주도 사업부 매각 :
 - ✓ Unilever, 글로벌 차 사업부를 CVC에 매각
 - ✓ Reckitt Benckiser, 중국 유아용 조제분유 및 어린이 영양 사업을 Primavera 그룹에 매각
 - ✓ Pepsico, Tropicana 및 기타 주스 브랜드 사업부를 PAI 파트너스에 매각
- 행동주의 주주 등 가치 창출에 대한 주주의 압력이 거세지는 한편,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과 이에 따른 사업모델의 붕괴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의 기업분할
 - ✓ GSK,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을 별도 상장 회사로 분리 계획 발표
 - ✓ Johnson & Johnson, 소비자 건강 사업부 분리
 - ✓ Saks, 오프라인과 온라인 소매 사업 분리 계획 발표

온라인 플랫폼과 E-commerce

- 온라인 플랫폼과 E-commerce 기업들이 M&A를 통해 역량 확보와 인접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 많은 유명 패션 브랜드가 주목하고 있는 패션 렌탈 및 리셀 시장은 2022년에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주로 신생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지만, 최근에는 기성 브랜드 및 소매유통업체들이 패션렌탈과 리셀 전문 기업들과 협력하여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 **관련 딜 사례:** Kering 이 중고품 재판매 회사인 Vestiaire Collective에 대하여 최근 투자를 실행한 바 있으며, Etsy는 패션 재판매 마켓플레이스 Depop를 인수한 바 있다.
- 또한, 소비자가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구매 결정을 내리려는 '의식적인 소비주의' 증가 추세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재편되고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예로는 Genomatica, Bolt Threads, Debrand와의 M&A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재료 또는 재활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Lululemon이 있다.

소비재 산업의 주요 M&A 테마 (2/2)

공급망과 운송

공급망 혼란은 원자재 소싱과 제품 운송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Ikea, Walmart, Target 및 Home Depot와 같은 세계 최대 소매업체들은 제때에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자체 컨테이너를 구입하거나 전세선을 사용하는 한편, 전략적 인수에까지 나서고 있다. American Eagle Outfitters는 공급망을 혁신하기 위해 Quiet Logistics(Fulfillment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및 로봇 공학에 중점)와 Airterra (소포 배송 중점) 두 개의 물류 회사를 인수하였다.

소비재, 유통 및 물류 기업들은 공급망 내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회복력을 갖추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더 M&A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한 M&A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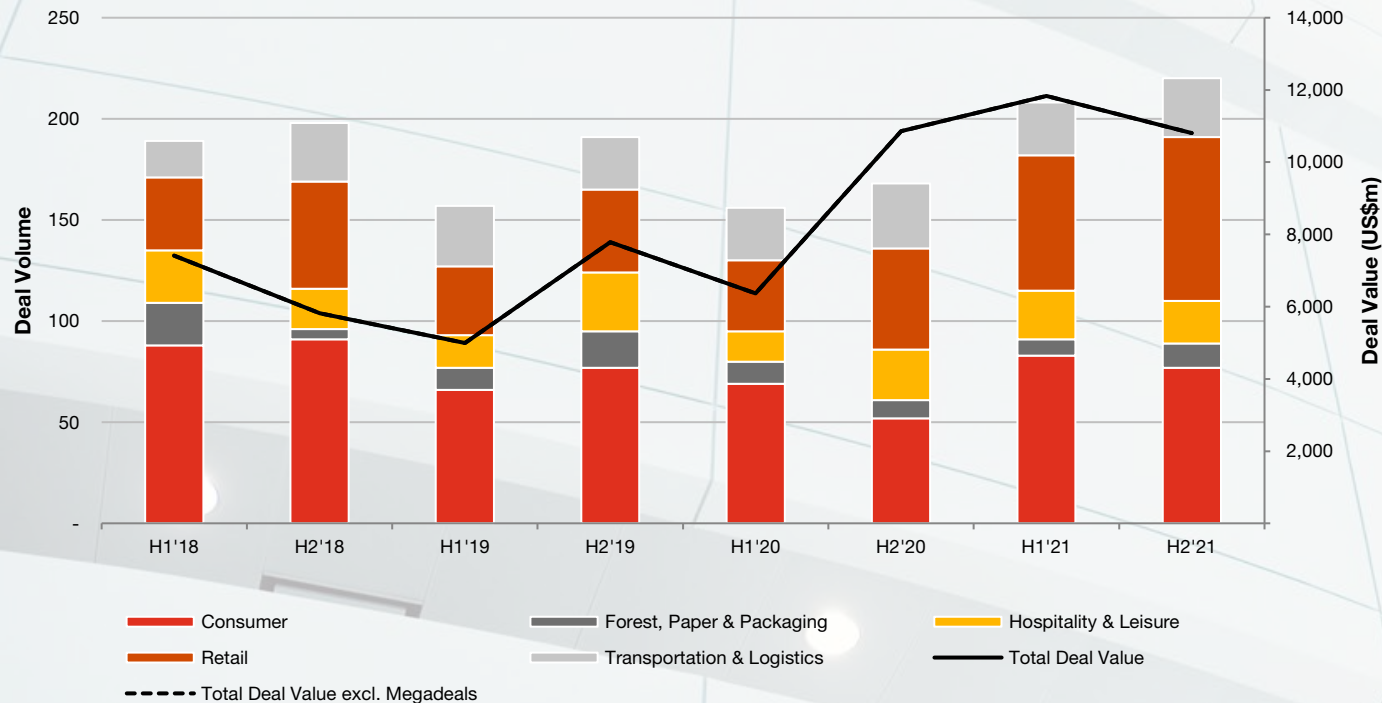
- **수직적 통합**: 상향적 (ESG 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면서 생산 또는 소싱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및 하향적(제품의 유통방식을 제어할 수 있도록)
- **공급망 프로세스에 특화된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활용 테크 비즈니스**
- **초스피드의 풀필먼트 역량 등 고객 배송 옵션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있는 물류 사업**

또한 물류 부문은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전문 물류 기업들은 소비자 기업의 잠재적 M&A 대상이기도 하다.

- **특수 분야로의 영역 확장**: DHL은 화물운송 분야에 전문 운송 기업인 J.H. Hillebrand Group를 인수
- **시장 결합 목적**: GeoPost는 기존 유럽 소포배달 사업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네트워크와 결합하기 위하여 Aramex를 인수

2021년의 한국 소비재 산업은 유통 분야의 대형 M&A가 주도하면서 유통 산업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져

한국 소비재 산업 M&A 거래건수 및 거래 금액, 2019-2021 반기별



- 2021년 한국 소비재 산업의 M&A는 428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금액은 27조원 (USD22,644m)으로 나타났다.
- COVID-19의 여파로 2020년에 주춤하던 M&A가 2021년 COVID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여 전년대비 거래건수 기준으로 32%, 거래금액 기준으로 31% 성장하였다.
- 소비재 산업의 M&A는 한국 전체 M&A 시장의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18.5%,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유통분야와 소비재분야의 M&A 비중이 높다.
- 2021년에는 특히 유통분야의 M&A가 거래건수 기준으로 74%증가하여 148건, 그리고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61%가 증가한 10조 (USD 8,673m)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M&A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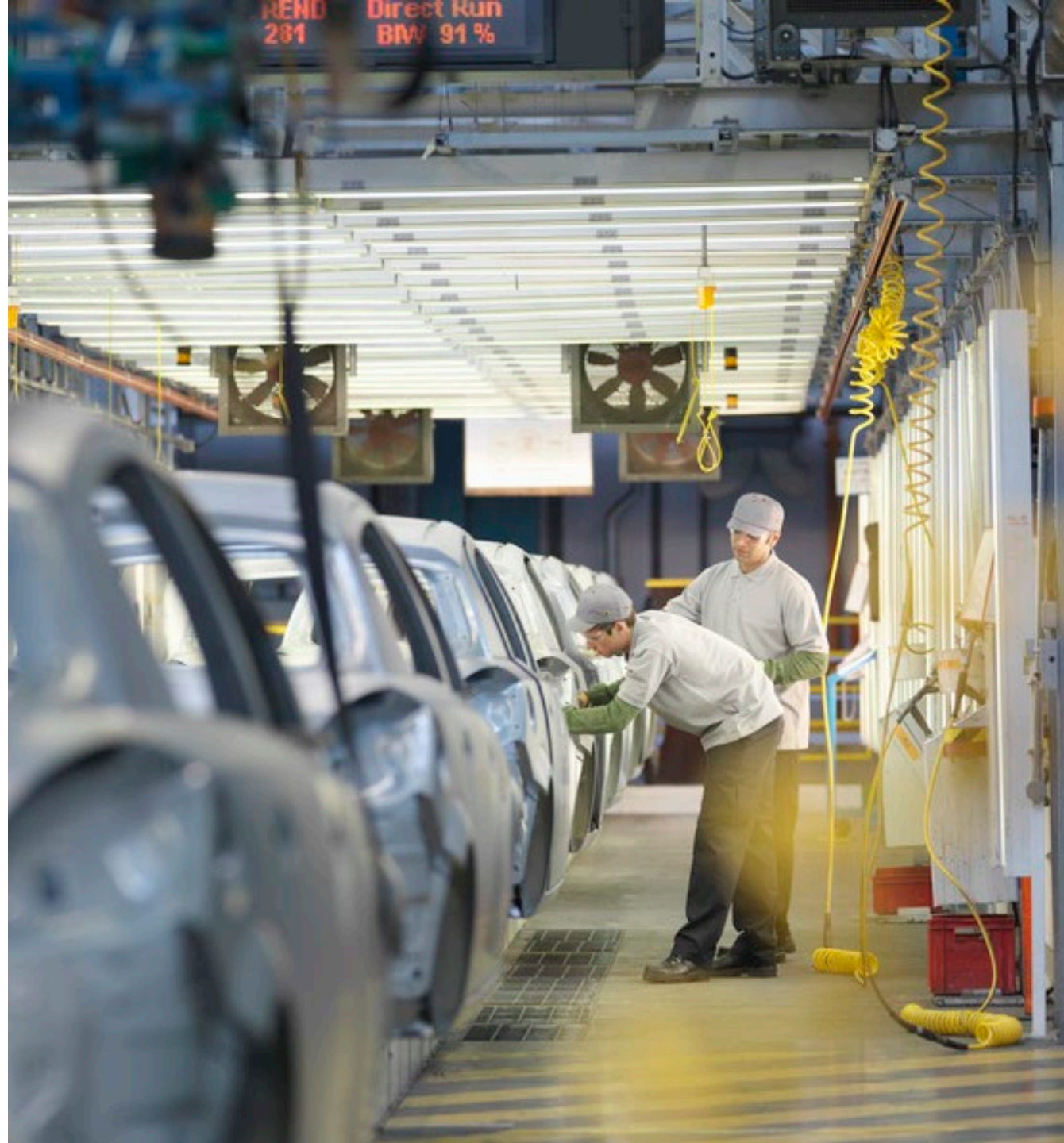
- 2021년 6월 신세계 이마트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지분 80.1%를 3조4404억원 (USD 3,003m)에 인수한 거래와 GS리테일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와 공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를 8000억원 (USD688m)에 인수하여 유통분야의 지각 변동을 불러온 바 있다.
- COVID-19의 영향으로 소비시장이 급속하게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M&A를 통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202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소비자재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 판매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떠오르면서 중소 규모의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M&A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으로 급변하는 산업의 특성과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가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과 맞물려 사모펀드의 역할 증대로 이어질 것.

- IMM과 롯데가 공동으로 한샘을 1조 4500억원(USD1,233m)에 인수하였고, 신세계가 GIC와 공동으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다. 또한 IPO를 앞둔마켓컬리가 25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 온라인과 플랫폼으로 급변하는 산업의 특성과 COVID-19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가 사모펀드가 보유한 풍부한 자금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산업과 사모펀드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산업의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 여건은 2022년에도 계속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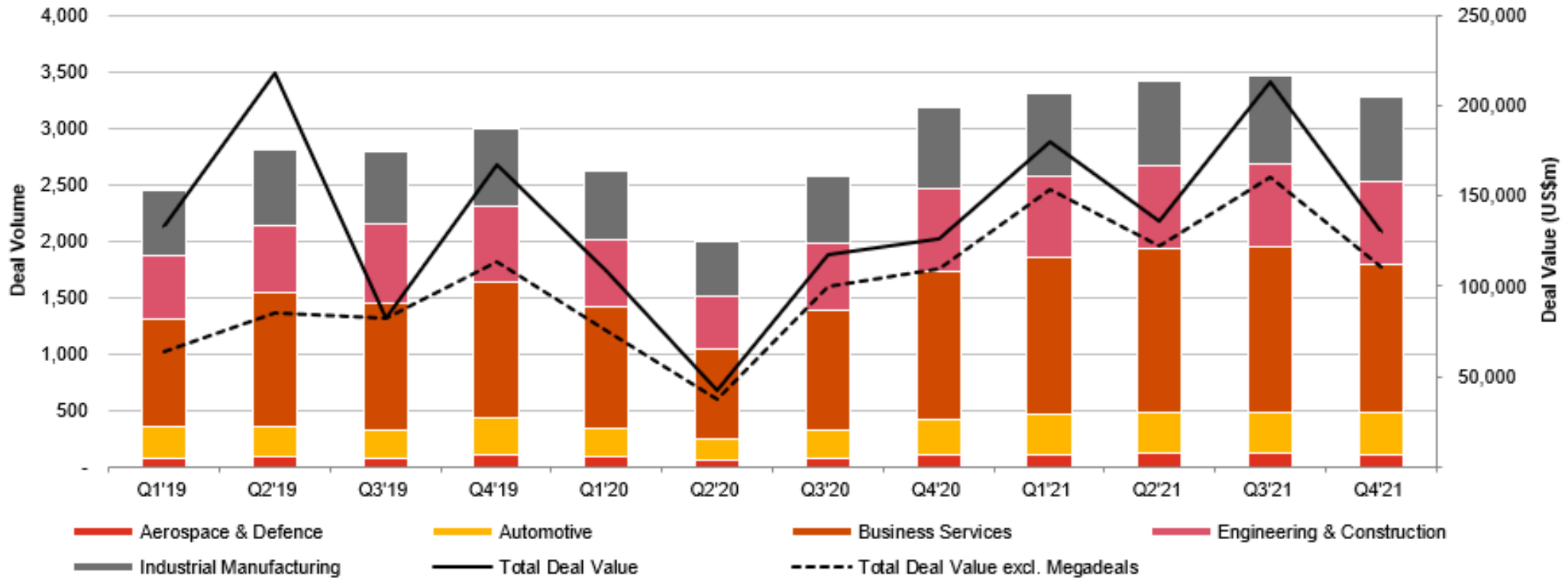
제조 및 자동차 산업 M&A

Industrial Manufacturing &
Automotive Industry, IM&A



COVID-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2021년 제조 및 자동차 산업(IM&A) M&A
































글로벌 제조 및 자동차 산업(IM&A) M&A 거래건수 및 금액, 2019-2021 분기별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e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 information)

2021년 글로벌 제조 및 자동차 산업(IM&A) Top 10 M&A

Top 10 Global Industrial Manufacturing & Automotive Deals, 2021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Polestar Performance AB	 Gores Guggenheim Inc	SPAC	 20.0	
2	 Lucid Motors USA Inc	 Churchill Capital Corp IV	SPAC	 11.8	
3	 Aurora Innovation Inc	 Reinvent Technology Partners Y	SPAC	 11.0	
4	 Meggitt PLC	 Parker Hannifin Corp	Corporate	 8.7	
5	 Equans NV	 Bouygues SA	Corporate	 8.2	
6	 WestConnex Pty Ltd	 Investor Group (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 and Sydney Transport Partners)	PE	 8.1	
7	 FLIR Systems Inc	 Teledyne Technologies Inc	Corporate	 7.5	
8	 Anticimex AB	 GIC Special Investments and Investor Group	PE	 7.3	
9	 Xugong Group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XCMG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Corporate	 6.9	
10	 Terminix Global Holdings Inc	 Rentokil Initial PLC	Corporate	 6.7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e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 information)

 Aerospace & Defence
  Automotive
  Engineering & Construction
  Industrial Manufacturing
  Business Services

제조 및 자동차 산업 M&A Outlook 및 주요 테마

전략적 포트폴리오 재편과 ESG가 산업용 제조 및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가치창출에 필수적인 Agenda로 부상

- 백신접종률 상승이 산업용 제조 분야에서 생산량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제조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인수자 및 투자자들의 미래 전망 역시 낙관적으로 전환되면서 2022년 역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바이러스 변종 출현, 공급망 불안정성, 원자재 가격 상승을 포함하여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등 부정적인 대외 변수 가운데에서도 제조 및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성장 분야에 집중하고 비핵심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면서 가치창출을 위한 M&A에 나설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화

- COVID-19로 가속화된 디지털화는 운영 효율성 극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원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 소프트웨어와 센서는 지속적인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정기적인 매출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원자재 가격

-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과 함께 잠재적 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은 소싱 및 가격 전략 재고에 나서고 있다.
- 산업활동의 강한 반등세는 원자재 수요 급등, 공급망 병목현상, 배송지연, 운송가격의 인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금 유동성

- 패밀리 오피스 및 사모펀드, 그리고 SPAC로부터의 자금 유입 증가.
- 특히 작년 제조 및 자동차 산업의 상위 거래가 SPAC이 인수한 M&A 거래였으며, 내년에는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SPAC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SG

- ESG는 에너지 저장 및 사용, 생산 공정, 지속 가능한 운송, 공급망 탄력성, 건강 및 안전, 다양성 및 포용성 등 제조와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제조 및 자동차 산업 기업들은 산업 규제에 대한 대응과 ESG 충족을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1] 제조 및 자동차 산업 분야 (IM&A)는 항공기 제조 및 방산, 자동차, 엔지니어링 및 건설, 산업재 제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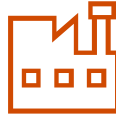
넷제로 이행에 대한 제조 및 자동차 산업 세부 섹터별 리스크 및 기회

엔지니어링 및 건설(E&C)



- 엔지니어링, 건축 자재와 주거시설 건설 수요 증가로 2022년에도 E&C 분야의 M&A는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택근무의 증가,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 건설은 신규 건설과 기존 주택 및 사무실 건물 개조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 2022년에는 원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목재, 시멘트 및 가공 강철 등)과 운송 비용, 그리고 임금의 상승(엔지니어 및 신기술 전문 인력 부족으로) 등이 예상되면서 E&C 기업들은 비용 절감, 디지털화(예: 연결 및 자동화된 건설 프로세스) 그리고 친환경적인 기능 구축을 위한 R&D에 집중하고 있다.
- E&C 기업에 부과되는 ESG 목표와 규제는 신축 건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를 변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 원자재에 강점이 있는 건설 회사와 오프사이트 건설(offsite construction), 자급자족형 빌딩, 스마트 도시 인프라 관련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인수 대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제조



- 2021년 제조 분야가 다시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와 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해진 생산 활동으로 2022년 M&A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 대기업은 역량 주도 인수와 회복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되는 타겟에 집중하는 한편, 그 밖의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제품 포트폴리오 및 지리적 확장, 수직적 통합과 운영 통합을 추구할 것이다.
- 디지털 개발, 비용 효율성,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적 역량(숙련된 노동력의 부족 보완 목적), 친환경적 역량(ESG), 새로운 에너지 생산 제조, 3D 프린팅과 산업 자동화 등의 영역이 중점 관심 분야로 부상함에 따라 비핵심 자산의 매각과 디지털 및 친환경 역량에 대한 재투자가 전망된다.
-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제조업체와 같은 회사는 비즈니스를 전환하거나 출구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ADS)



-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분야는 여전히 COVID-19의 영향권내에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량 감축 역시 중요한 업계 이슈이다.
- 여행수요의 회복으로 항공기 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여행이 제한되면서 2022년에도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항공산업은 2022년부터 연료 효율성을 고려한 M&A가 요구된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과 바이오 연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이 가능한 항공기를 개발하는 등 탄소 배출량 감축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 역시 공급망 강화를 위한 M&A가 부각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과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이 합병되거나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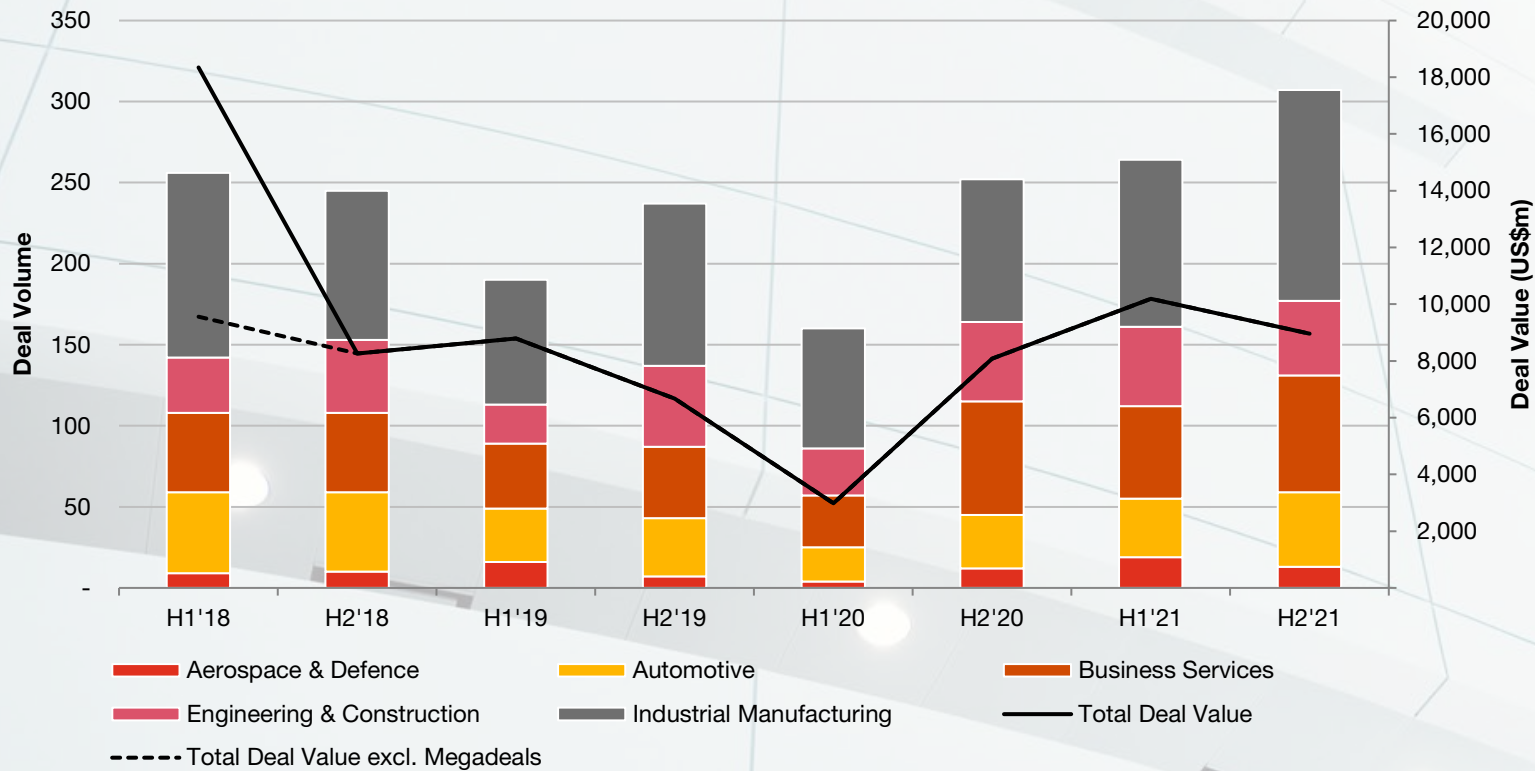
자동차



-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 대비 공급망 혼란과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부족은 자동차 생산에 큰 혼란을 초래하면서 2022년에는 기존 제품에 대한 생산 효율화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M&A가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 2022년에는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M&A가 다수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2021년 전기차와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에 대한 SPAC의 합병 추세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차로의 가속화된 전환으로 R&D와 생산 역시 전기차에 집중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M&A는 주로 디지털 혁신(소프트웨어, 연결성, 맞춤형 칩), 전기차 배터리 및 연료 전지 기술과 충전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완성차 업체는 R&D 비용 분담과 반도체와 같은 부족한 원자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합작투자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충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부와의 협의도 2022년 예상되는 과제이다.
- 기존 부품업체들은 전반적인 기술 변화 속에서 출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제조 및 자동차 산업 M&A, 거래건수에서는 제조 분야,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건설분야에서 활발한 M&A가 이루어져

한국 제조 및 자동차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 2018-2021 반기별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 2021년 한국 제조 및 자동차 산업의 M&A는 571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금액은 약 23조원 (USD 19,142m)으로 나타났다.
- COVID-19의 여파로 2020년에 상반기에 주춤하던 M&A가 2020년 하반기부터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2021년에는 전년대비 거래건수 기준으로 39%, 거래금액 기준으로 73% 성장하였다.
- 거래 건수 면에서는 제조분야가 233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2조 671억원, USD 1,755m)와 SK 그룹이 미국의 플러그파워 인수 (1조 8천억원, USD 1,610m)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건설분야와 제조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 제조 및 자동차 산업분야의 대형 딜들은 주로 구조조정형 딜이 주도 하였는데, 대표적 거래로는 두산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매물로 나온 두산인프라 코어를 현대중공업이 인수한 바 있으며, 구조조정 진행 중이던 한진중공업을 동부건설이 인수한 바 있다.

ESG에 대한 관심 증가

- 2021년 IM&A 분야의 주요 테마 중의 하나는 ESG 였다.
- 글로벌 ESG 경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 되기 시작하면서 폐기물과 환경 관련 매물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M&A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특히 SK 에코플랜트는 2021년 5월 SK 건설에서 사명을 바꾼 후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M&A 를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환경시설관리'를 친환경 사업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인수한 이후 수처리, 소각,매립분야 등 다운스트림 사업에 대한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에만 대원그린에너지를 포함하여 폐기물소각기업 6곳을 인수하였다. 또한, 해상풍력터빈 하부구조물 제작기업 삼강엠앤티도 인수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 발전시장에 진출하였다.
- 대기업들은 ESG 관련 거래(ESG 문제 포트폴리오 정리, 에너지와 환경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ESG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 한해 폐기물 시장의 M&A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작년에 △대원그린에너지 △클렌코 △충청·경기·경인·경북 환경에너지 △디디에스 등의 M&A가 있었고, 2020년에는 업계 1위 업체인 EMC홀딩스를 비롯해 △코엔텍 △새한환경 △코오롱환경에너지 △인선ENT 등의 M&A가 진행된 바 있다.
- 2022년에는 이러한 ESG관련 매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며, 재활용 분야 역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구조조정 형 M&A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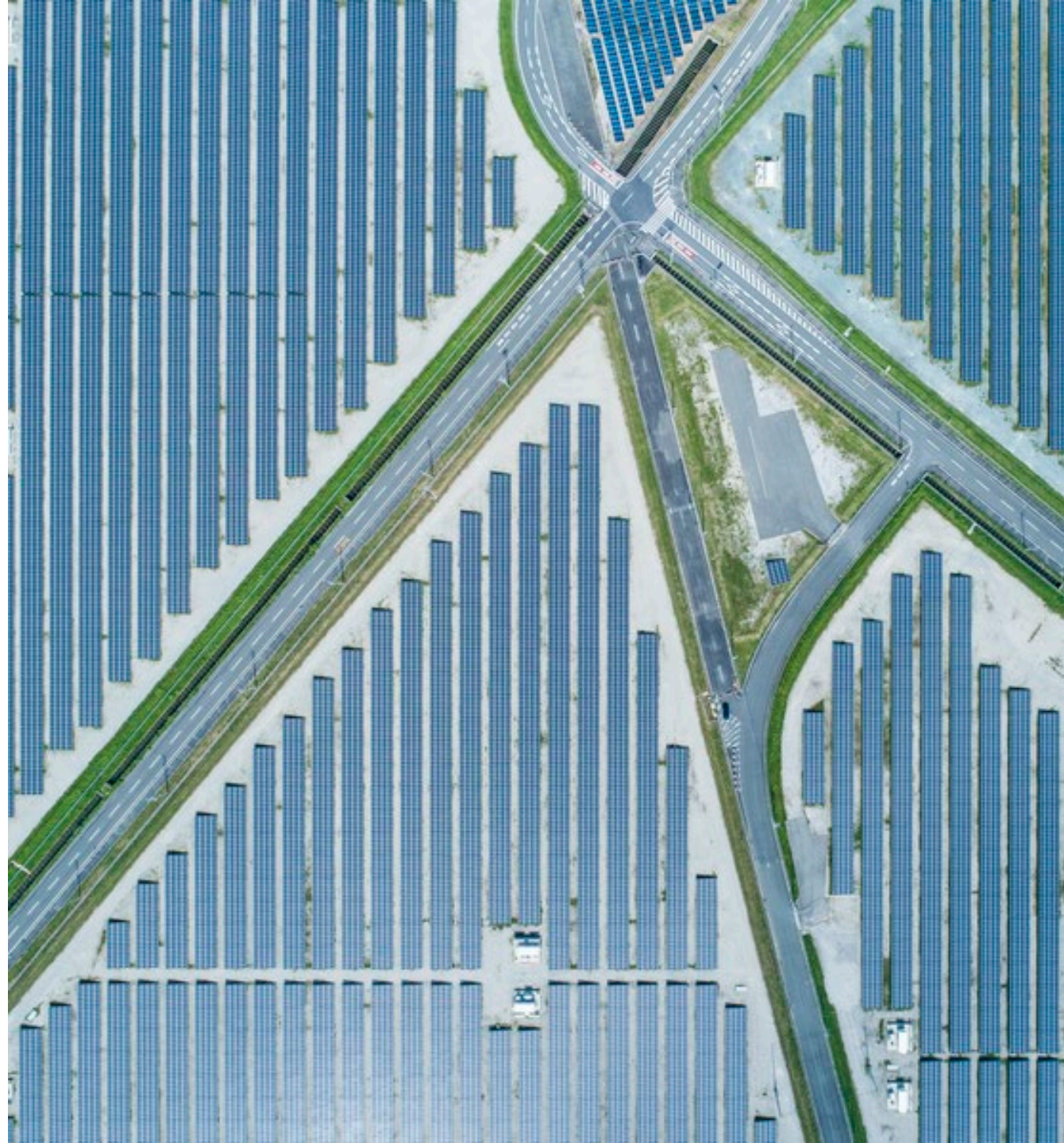
- 2021년 IM&A 분야의 M&A는 2020년부터 시작된 두산그룹과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M&A 등 구조조정 형 M&A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하였으나, 글로벌 시황이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기업들의 비핵심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매각에 나서면서 IM&A 산업의 M&A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 급속한 전동화가 진행되면서 부품업체간 합종연횡 (전동화에 뒤처지는 한계기업의 정리와 전동화 수혜업체의 거래 증가) 예상된다.

산업 대전환에 따른 M&A

- 국내 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M&A 산업은 디지털화와 ESG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전환을 마주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COVID-19 이후 공급망 재정비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편과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전망되는 분야이다.
- 자동차 분야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Mobility 산업으로의 이행이 가속화 되는 분야로서 새로운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기업 위주로 해외 기술 기업들에 Cross border M&A와 전동화의 핵심인 2차전지, 충전인프라, 자율주행부품/SW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활발한 투자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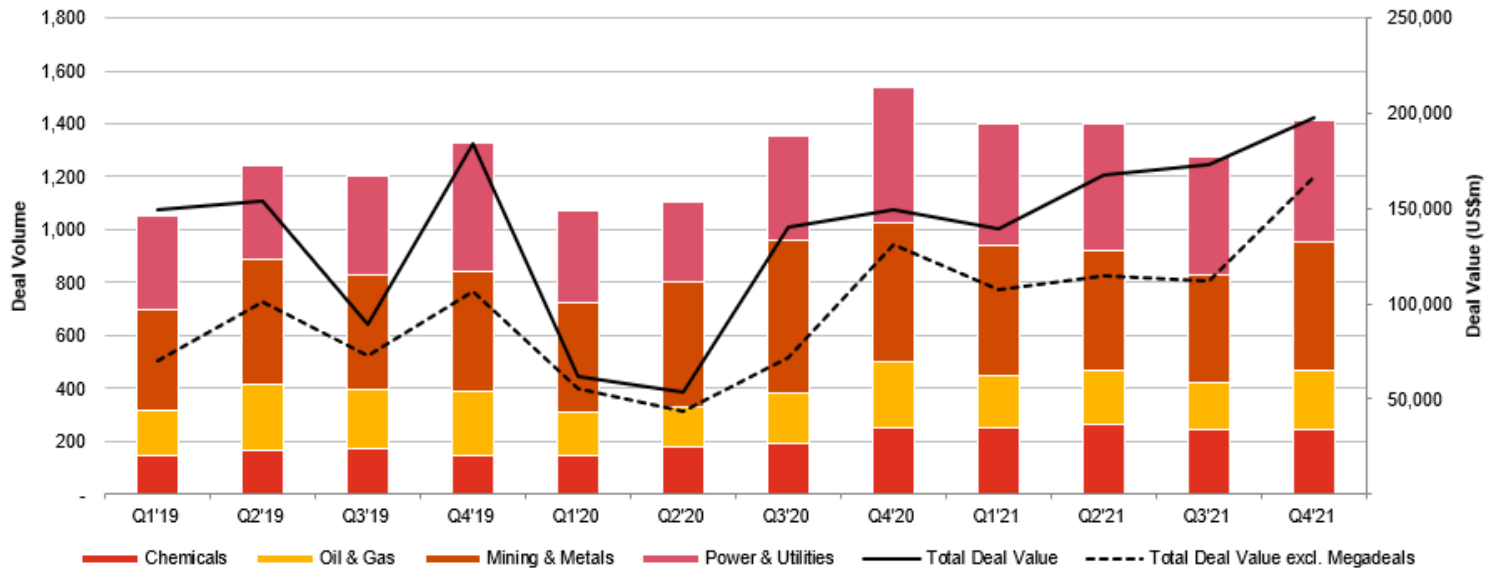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 산업 M&A

Energy, Utilities & Resources, EU&R



각 하위 섹터에서 다수의 메가딜이 이루어지면서 M&A 거래 금액이 크게 증가

글로벌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 산업(EU&R) M&A 거래건수 및 금액, 2019-2021 분기별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1년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산업 M&A 거래건수와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8%와 67% 성장하였다.

- 금속 광물**: 2021년 거래건수는 전년대비 8% 감소하였으나, 2건의 메가딜로 거래금액은 57% 증가하였다 : Agnico Eagle Mines 사, 107억 달러에 Kirkland Lake Gold 사의 인수와 Shanghai Zhongyida co사, 66억 달러에 Wengfu (Group)사 인수
- 석유 및 가스**: 업스트림과 가스 섹터의 메가딜로 2021년 M&A 거래건수는 전년 대비 7% 성장하였으며, 거래금액은 86% 증가하였다.
- 전력 및 유틸리티**: 2021년 5건의 메가딜에 힘입어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19%와 71% 증가하였다. - National Grid Holdings의 201억 달러의 PPL WPD 투자사 인수 건
- 화학**: 전년대비 거래금액이 35% 성장

2021년 글로벌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 산업(EU&R) Top 10 M&A



Top 10 Global EU&R Deals, 2021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PPL WPD Investments Ltd	National Grid Holdings One PLC	Corporate		20.1
2	Aramco Gas Pipeline Co	Investor Group (Hassana Investment Co and others)	PE		15.5
3	BHP Petroleum International Pty Ltd	Woodside Petroleum Ltd	Corporate		14.0
4	Municipal Water & Solid Waste Assets of Suez SA	Investor Group (Meridiam SAS,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and Caisse des Depot et Consignations)	PE		12.4
5	Aramco Oil Pipelines Co	Investor Group (Hassana Investment Co and others)	PE		12.4
6	Oil & Gas business of Lundin Energy AB	Aker BP ASA	Corporate		11.0
7	Kirkland Lake Gold Ltd	Agnico Eagle Mines Ltd	Corporate		10.7
8	Permian basin business of Shell Enterprises LLC	ConocoPhillips	Corporate		9.5
9	AusNet Services Ltd	Investor Group (Brookfield Asset Management and others)	PE		7.7
10	Cimarex Energy Co	Cabot Oil & Gas Corp	Corporate		7.5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e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 information)

PwC | M&A Industry Insights



Power & Utilities



Chemicals



Oil & Gas



Mining & Metals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EU&R) 산업 주요 M&A 테마

ESG



-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EUR) 산업 전반의 많은 기업들이 ESG 전환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ESG 관련 M&A가 이제 성숙단계에 진입하였다.
- 최근까지 탄소집약 자산의 매각과 같은 ESG 관련 M&A는 주로 규제나 행동주의 주주로 부터의 압력으로 시도되기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서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가치 창출의 기회로서 ESG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 이에 따라, EUR 기업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 탄소감축 및 탈탄소화 등과 같은 고성장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 합병, 전략적 파트너십 등의 전략 추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Geopolitical trends



- 정치적 규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M&A 전략 역시 변화하게 된다. COVID-19 완화에 따른 국가별 상이한 대응, 계속되는 무역 분쟁, 그리고 정권교체 등이 인플레이션, 저성장, 규제 변화, 사회적 불안, 법인세 및 자원세 인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은 채권수익, 이자율, 기업가치 평가 그리고 자산의 유동성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와 M&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계속되는 글로벌 무역 분쟁은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준비하고 있는 한편, 중요 경제 대국들 간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Capital availability



- 금리상승은 M&A 참여자, 특히 사모펀드 조달 자금의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SPAC은 주로 에너지 전환 관련 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딜에 대한 인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프라펀드는 계속해서 전력과 유틸리티, 미드스트림 석유와 가스 자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 집행을 계속할 것이다.
- 높은 ESG 리스크가 존재하는 탄소 집약 프로젝트와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ESG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매각되는 자산에 대하여 이미 잠재적 인수자들과 자금 대여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높지만 경제성이 있는 자산은 주로 ESG 보고 의무가 없거나 적은 비상장 기업이나 전략적인 국부펀드 등이 주요 인수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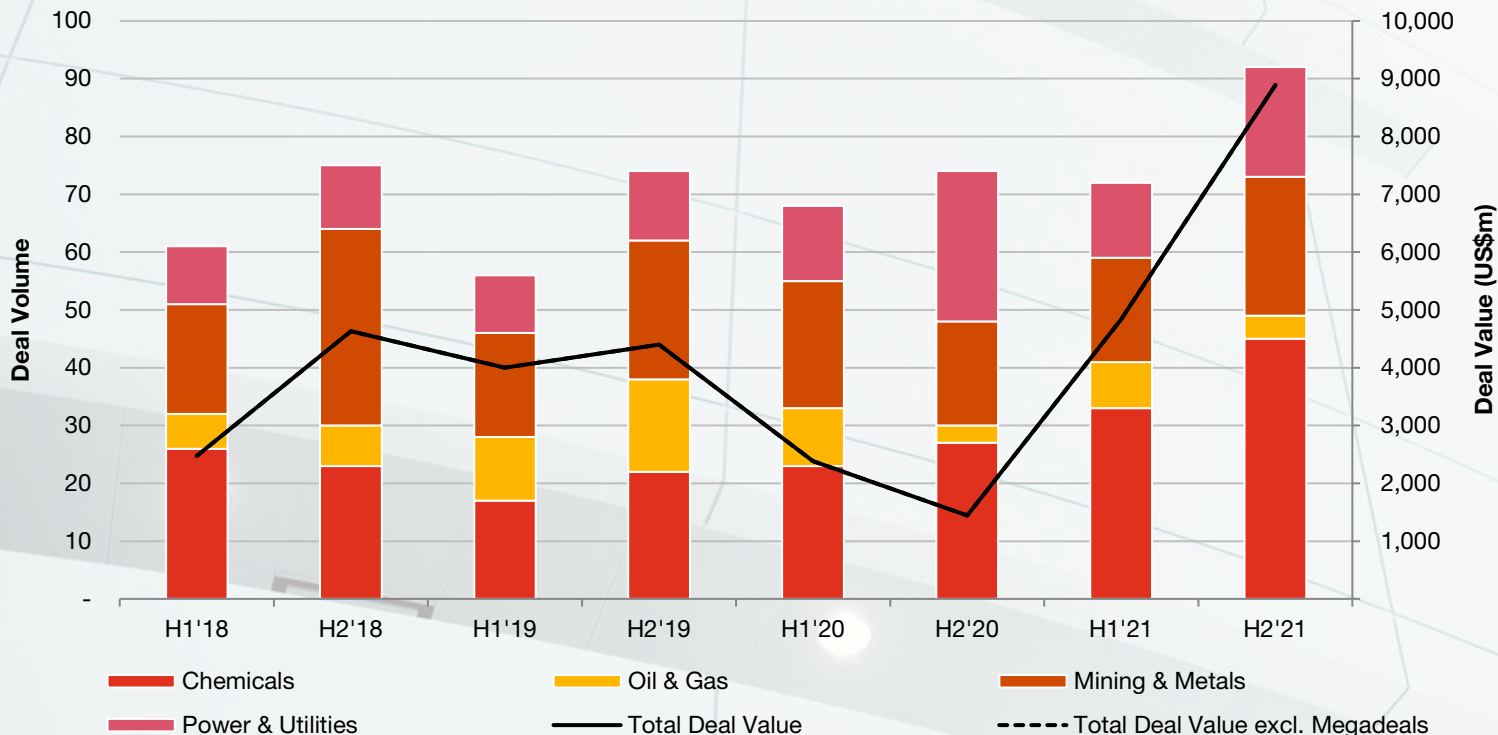
Post COVID-19 recovery



- 백신접종률 상승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에너지와 자원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축소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석유가격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E&P 기업들은 2022년 동안 자금 집행 계획에 신중한 모양새다. 따라서 에너지 서비스 기업의 가치평가가 낮아지면서 이 분야에서 서비스 확대와 시너지 실현을 위하여 통합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 산업 및 금속 분야는 일부 금속을 중심으로 10년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2022년에 활발한 M&A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GDP와 소비지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화학 기업들의 회복세는 경제 회복에 따라 가속화 되면서 화학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상당한 규모의 신축 공장설비가 2022년에 마무리 되면서 공급 부족은 다소 해소되고, 이에 따라 인수자와 매도자 간의 기대가치가 좁혀지면서 M&A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 분야의 M&A가 활발히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 산업(EU&R) M&A에도 ESG 영향 본격화

한국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 산업(EU&R) M&A 거래건수 및 금액, 2018-2021 반기별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 상기 차트는 Target 국가 기준 거래를 집계한 것으로 DL 그룹의 거래는 상기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차트에 반영되지 않음.

- 2021년 국내 EU&R 산업의 M&A는 164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금액은 약 16조원 (USD 13,727 m) 으로 나타났다.
- COVID-19의 여파로 2020년에 주춤하던 M&A가 2021년 COVID19 이전 수준이상으로 회복하여 전년 대비 거래건수 기준으로 15%, 거래금액 기준으로 258% 성장하였다.
-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산업 중 특히 화학 분야의 M&A가 SK E&S에 대한 KKR의 2조4천억원 (USD 2,030m) 대 등의 투자에 힘입어 6조원 (USD 5,555m)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 대표적 EU&R 산업의 M&A 거래로는 DL 그룹이 미국의 대형 화학회사인 크레이튼(Kraton)을 약 1조 8,800억원(USD 1,583m)에 인수 한 Cross border 거래(*)가 있다.
- 특히 ESG 투자에 나선 EU&R 기업들에 대하여 국내 토종 사모펀드 IMM이 과감한 minority 투자에 나서고 있다 (SK 루브리컨츠 지분 40%를 1조원 1000억원 (USD 971m)에, 그리고 GS파워 지분 49%를 1조 239억원 (USD 855m) 에 인수)

ESG 사업기회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와의 협업

2021년 EU&R 산업 M&A의 주요 테마 중의 하나는 ESG 였다. 글로벌 ESG 경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EU&R 분야의 대전환은 글로벌 EU&R 산업 분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EU&R 산업 분야의 M&A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M&A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 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및 화학 기업들의 대전환과 ESG 관련 사업 실행을 위한 자금 확보에 있어서 해외 사모펀드를 비롯하여 국내 펀드들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ESG 경영이 국내 EU&R 산업에도 본격화 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발전

- 작년 12월 세계 최대 인프라스트럭처 자산운용사 맥쿼리그룹이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를 개발·투자하는 스타트업 피브이에너지에 1000억원 투자 결정.
- 블랙록 리얼에셋은 발전규모 2GW 이상의 신규 해상풍력 파이프라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인 KREDO홀딩스의 지분 100%를 작년 7월에 인수. 블랙록은 글로벌재생에너지(GRP) 전략을 통해 올해 초 48억 달러(약 5조5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후 인프라 자산에 투자

수소에너지

- 맥쿼리자산운용은 수소생산업체 덕양을 8500억원에 인수하였으며, 국민연금 역시 투자자에 참여함.
- 현대엔지니어링, 맥쿼리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과 손잡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연료전지 및 수소,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공동 개발 참여 발표

대기업의 친환경 포트폴리오로의 재편에 따른 투자

- GS그룹의 에너지사업 지주회사인 GS에너지는 지난 12월 자회사 GS파워 지분 49%를 1조 239억원에 IMM인베스트먼트에 매각. GS 에너지는 본 매각 대금을 바탕으로 그린발전 포트폴리오 확장, 스마트전력 솔루션 등 ESG 4대 경영전략 실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기회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
- KKR은 국내 에너지 기업 SK E&S가 신규 발행한 한화 2.4조원(USD 2,030m)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계약을 지난 10월 체결하였으며, SK E&S는 이 자금을 활용하여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솔루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회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탄소중립 기술 및 사업 적극 진출

- 한화임팩트는 지난해 수소 혼소 기술 글로벌 기업 PSM/ATH사 ((Ansaldo Thomassen B.V.) 지분 100% 를 인수. 이 두 회사는 글로벌 가스터빈 기업 '안살도 에네르기아(Ansaldo Energia)'의 자회사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터빈 수명 및 성능 향상과 수소 혼소 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호주 천연가스 생산업체 세넥스에너지(Senex Energy)를 인수하여 호주에서 육상가스전 생산과 개발과 함께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포집 및 저장(CCS)을 통한 블루수소 생산에 나설 전망이다.

탄소 집약적 자산에 대한 매각은 중/장기적인 과제

- 해외 EU&R 기업들의 탄소집약적 자산에 대한 매각은 본격화 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 국내 EU&R 기업들의 탄소 집약 자산 매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2050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따른 탄소집약 자산의 가치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면 자금조달이나 전환에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올 해 부터 탄소집약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전략적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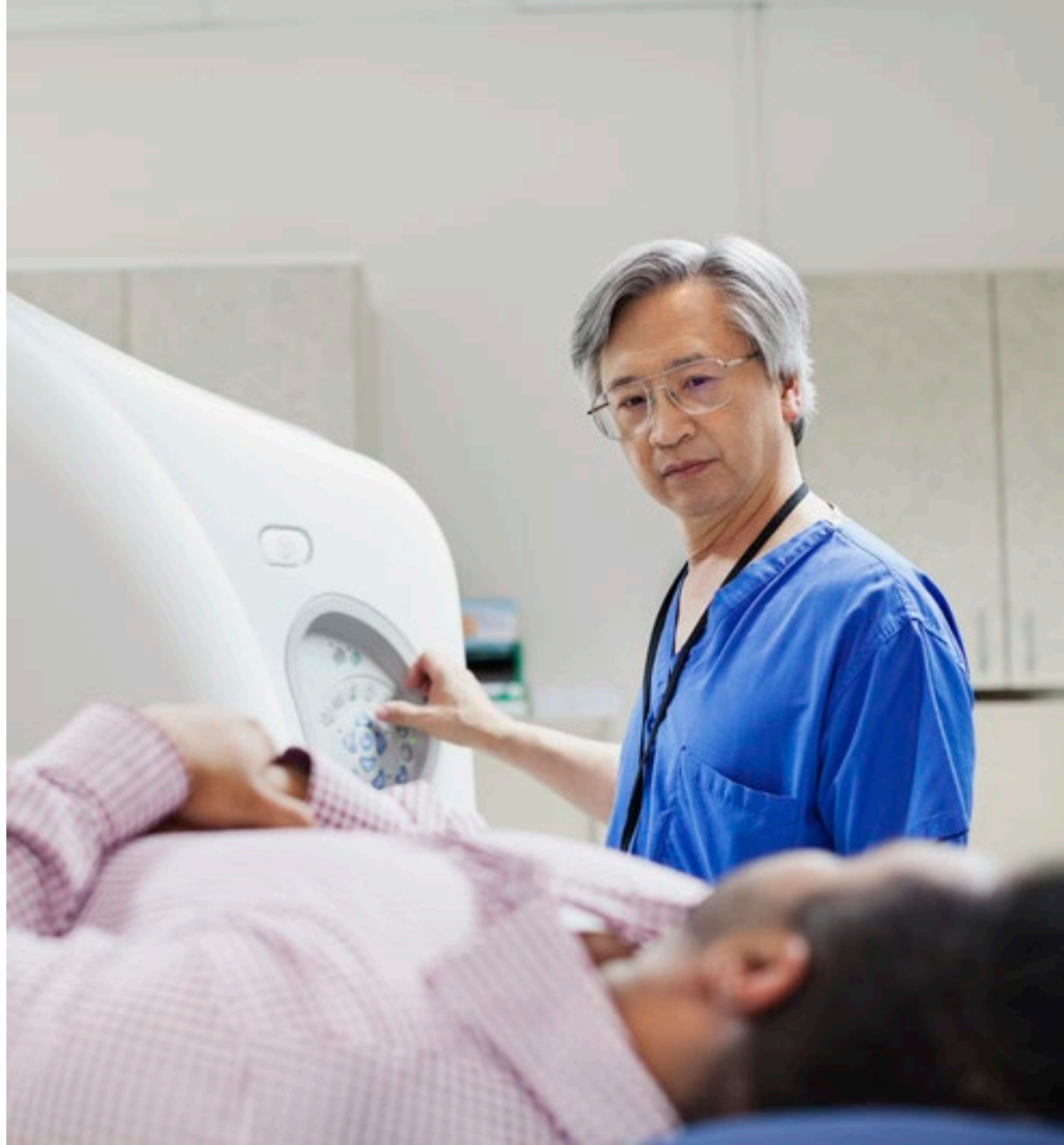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인수 활발

- 한화솔루션은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 개발업체인 'RES프랑스'지분 100%를 약 7억2700만 유로 (9843억원)에 인수하고 글로벌 에너지 개발 사업에 본격 나섰다.
-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 (Ark Energy)를 통해서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업체인 에퓨런(Epuron)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에퓨런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서부터 생산과 운영 등을 진행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고려아연의 포트폴리오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제약 및 의료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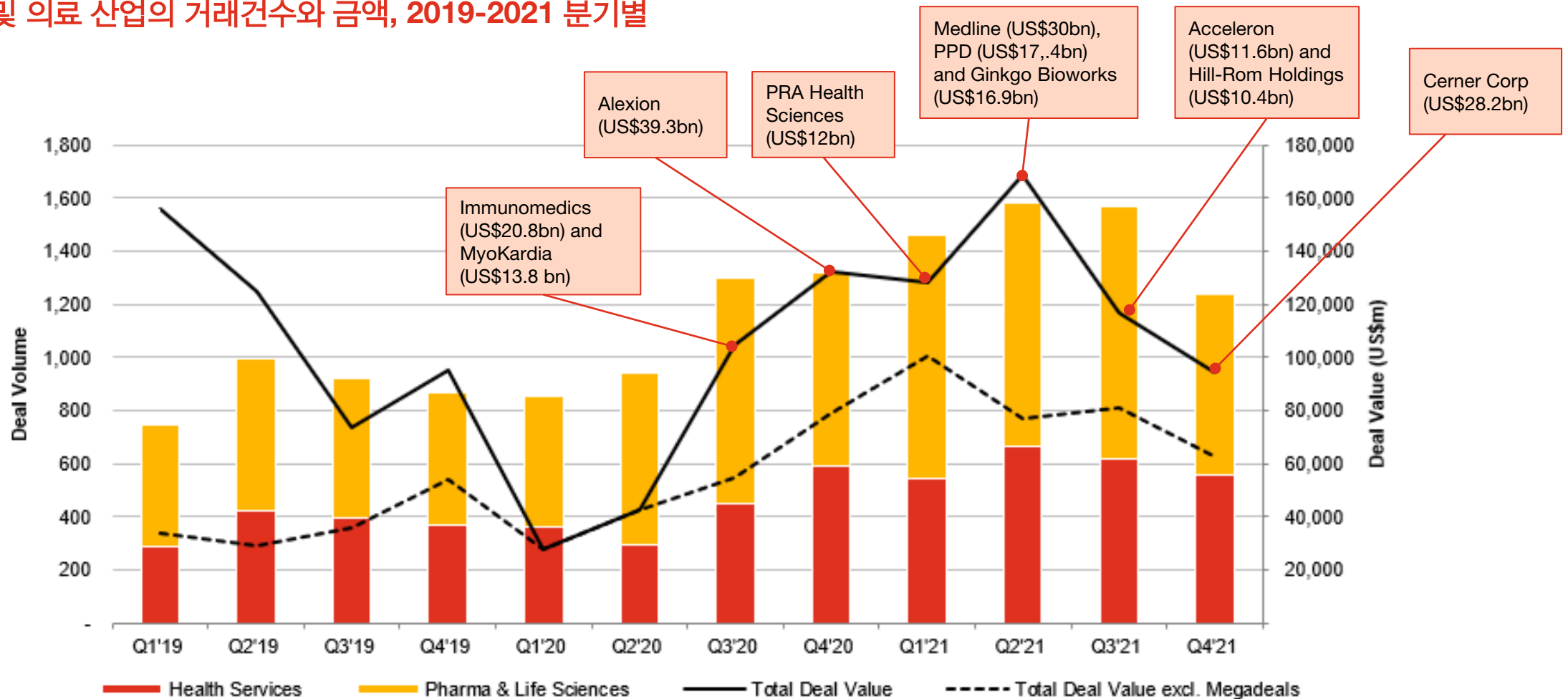
M&A

Health Industry, HI



2021년 제약 및 의료 산업 M&A는 메가딜이 이루어지면서 거래건수와 금액이 크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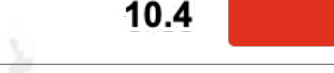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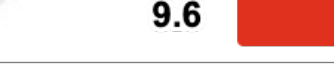
제약 및 의료 산업의 거래건수와 금액, 2019-2021 분기별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e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 information)

2021년 글로벌 제약 및 의료 산업 Top 10 M&A

Top 10 Global Health Industry Deals, 2021

	Target	Buyer	Deal type	SubSector	Deal size (US\$bn)	
1	 Medline Industries Inc	 Blackstone and Investor Group	PE		30.0	
2	 Cerner Corp	 Oracle Corp	Corporate		28.2	
3	 PPD Inc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Corporate		17.4	
4	 Athenahealth Inc	 Investor Group (Bain, ADIA, GIC and Hellman & Friedman)	PE		17.0	
5	 Ginkgo Bioworks Inc	 Soaring Eagle Acquisition Corp	SPAC		16.9	
6	 Vifor Pharma AG	 CSL Ltd	Corporate		11.6	
7	 Acceleron	 Merck & Co	Corporate		11.6	
8	 PRA Health Sciences Inc	 ICON PLC	Corporate		11.1	
9	 Hill-Rom Holdings Inc	 Baxter International Inc	Corporate		10.4	
10	 Aldevron LLC	 Danaher Corp	Corporate		9.6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e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 information)

 Pharma & Life Science  Health Services

제약 및 의료 산업 M&A Outlook

글로벌 의료 산업 M&A 건수와 거래금액은 2022년에도 높은 수준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mRNA와 유전자 치료 같은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M&A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전통적인 제약 회사는 혁신 투자와 포트폴리오 재편을 목적으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편, 중간 규모의 바이오 테크 기업들에 대한 대형 제약 회사와 기관 투자자(VC, IPO 등) 간의 인수 경쟁이 치열한 상황
- 거래배수 상승이 계속되면서 인수자들은 M&A 이후 가치창출 계획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인수 가격 이상의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헬스케어 부문의 소비자 산업화

- GSK와 사노피,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발표한 소비자 건강사업부의 분할 상장 계획과 같이 2022년에는 소비자 건강 제품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Direct-to-consumer(DTC) 경험을 장착한 기업들의 이러한 사업부 분사 활동은 소비자 건강 제품 브랜드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따라서, 분사된 소비자 건강 브랜드 기업들은 소비자 산업 및 의료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M&A 참여자로 활약이 기대된다.

자본 할당과 포트폴리오 최적화

- 대형 제약 회사들은 OTC 제약사업부와 비핵심자산의 매각을 통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중기 전략의 일환으로 중간 규모의 바이오테크 기업의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 PE가 API 플랫폼을 구축하는 가운데, 원료 의약품 소싱에 대한 대응, 자산 경량화를 위한 생산시설의 매각 등을 위한 M&A 추진이 전망된다.

코로나 이후 mRNA 기술 활용 방안

- mRNA 백신의 성공으로 해당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이제 화이자 및 모더나, 그리고 BioNTech 같은 기업들은 신사업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 인플루엔자, HIV 등 다른 질병에 대한 mRNA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암에 대한 mRNA 백신 역시 연구에 돌입하였다.
- 이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 혁신 기업들이 매력적인 타겟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제약 및 의료 산업 주요 M&A 테마

포트폴리오 최적화

- 환자치료에 대한 혁신과 개발의약품의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셀, 유전자치료, mRNA와 디지털 분석에 특화된 전문 기업들 인수에 관심이 높다.
- 대기업들은 특수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기 위하여 비핵심사업부를 계속 매각하게 될 것이다. OTT 컨슈머 사업부의 매각과 전문제약사 및 CDO, CMO, CRO 기업들의 인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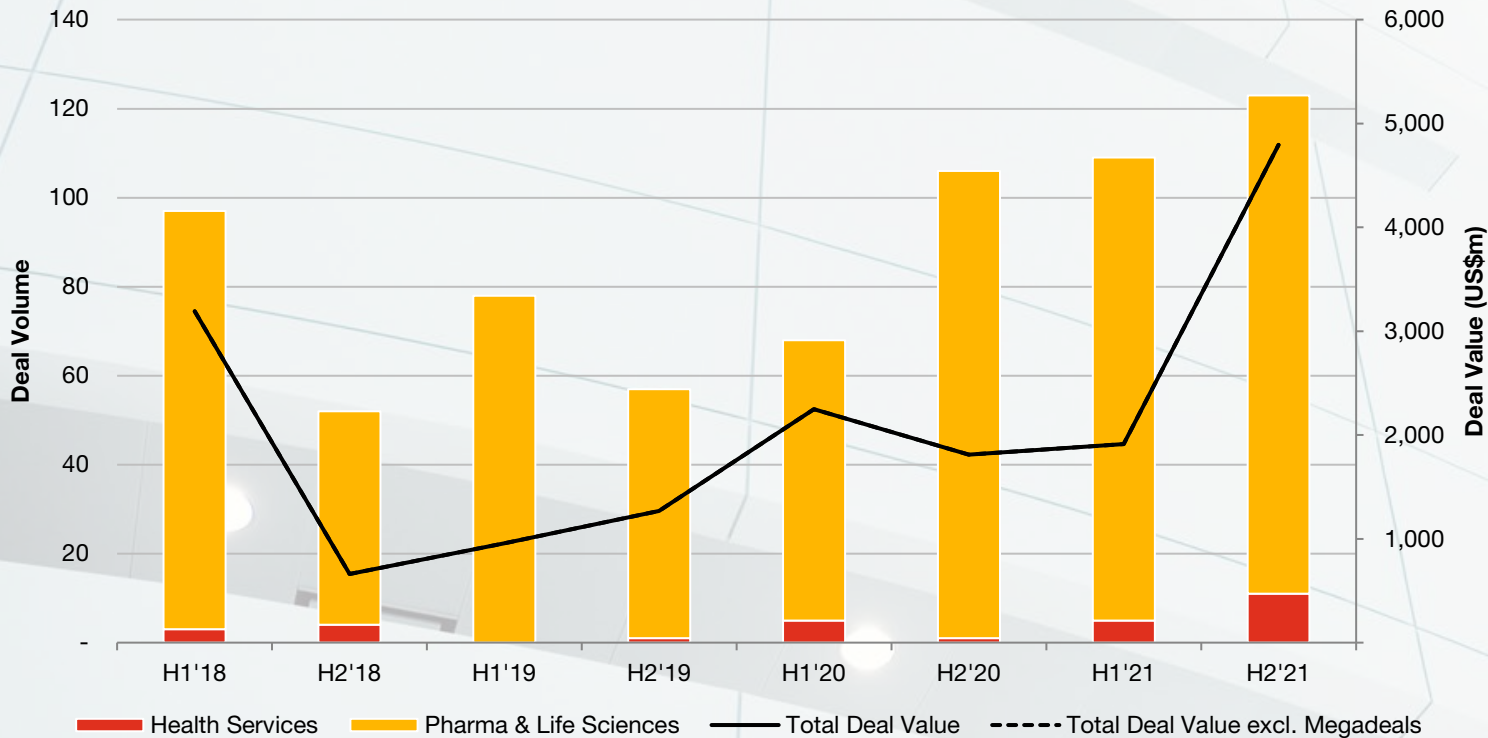
환자 경험의 디지털화

- 제약 및 생명과학,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모델이 디지털 분석,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디지털화 되어 가면서 기존 대기업들은 사업모델의 혁신을 위하여 산업간 M&A를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제약 및 생명과학,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들은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다 개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하여 테크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협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상최대의 M&A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M&A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

한국 제약 및 의료 산업의 거래건수와 금액, 2018-2021 반기별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 2021년 한국 제약 및 의료 산업의 M&A는 232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금액은 약 8조원으로 나타났다.
- 2021년에 사상최대의 M&A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거래건수 기준으로 33%, 거래금액 기준으로 65% 성장하였다.
- 한국의 제약 산업 M&A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중소형의 규모가 지배적이었으나, 지난 8월 GS그룹 컨소시엄이 보툴리눔 독신 회사 휴젤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1조7000억원에 체결하면서 거래금액에 있어서 큰 폭의 성장에 기여한 바 있다.
- 제약 바이오 분야의 M&A는 규모의 성장을 위한 합병과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 바이오 분야의 유니콘으로 성장한 에이프로젠이 에이프로젠 Med와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신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녹십자셀이 녹십자랩셀과 합병함으로써 '세포치료제'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면서 각기 다른 특화 역량을 가진 두 회사를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합병을 실행하였다.

‘Health & Beauty’ 양방향 ‘융복합 사업’ 사업고도화를 위한 M&A 활성화

-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의 ‘소비재 산업화 트렌드’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통적인 대형 제약사들의 기존 B2B 전문의약품(ETC) 중심 사업포트폴리오에서, DTC(Direct-to-consumer)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퍼스널 케어 시장 진출 모색 추세 (e.g. 종근당, 녹십자 등 대형제약사의 프로바이오틱스 건기식 시장 진출, HK이노엔(舊 CJ헬스케어)의 기능성 샴푸 등 퍼스널케어 진출)
- ‘건강’에 대한 소비자 Needs 측면에 전통적인 화장품(Cosmetics) 전문기업들도 ‘Cosmeceutical’ 및 ‘Derma Cosmetic’과 같은 Beauty와 Health의 융복합 서비스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 확대 및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e.g. LG생활건강의 CNP COSMETICS, 아모레퍼시픽의 AESTURA, 동국제약의 Centellian24+ 화장품 브랜드 런칭 등)
- 전통적인 전문제약사, 화장품/퍼스널케어 기업, 건기식 업체 등 ‘건강’을 테마로 하는 소비자 Needs 중심 융복합 가치 제공을 위한 ‘양방향 M&A’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규모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목적의 M&A

- 2020년 2915.31로 장을 시작한 ‘KRX헬스케어’ 지수는 90%에 가까운 수익률로 2020년 말 5517.31로 장을 마쳤다가 2021년 종가를 3721.17로 마무리 하면서 다시 2021년은 다소 부진한 한해를 보냈지만, COVID-19 이후 M&A시장에서 제약 및 의료기업들은 인기 높은 매물로, 작년 한해 제약 및 의료 산업의 M&A는 거래금액과 거래건수 모두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작년 3월 상장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021년말 현재 246%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한국의 제약 및 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불거진 제약 및 의료 기업들의 신뢰도 하락은 가치평가 이슈로 이어져, IPO에 대한 우려와 함께 M&A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그러나,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 분야는 글로벌 제약회사 대비 규모에 있어서 영세한 상황으로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많은 만큼,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규모 확대를 위한 M&A 추진이 전망된다.

자금 풍부해진 COVID-19 영향 기업들이 M&A 나서게 될 것

- 풍부한 유동성과 주가 상승으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COVID-19의 수혜로 현금을 확보한 진단 및 시약 기업들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가 M&A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 또한, 바이오 분야에서 높아진 벤처 창업 열기가 규모의 확대와 IPO 및 M&A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에서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M&A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 여전히 전통 제약사들은 M&A에 소극적인 가운데 COVID-19로 현금이 확보되면서 현금이 풍부한 중소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신사업 확보를 목적으로 한 M&A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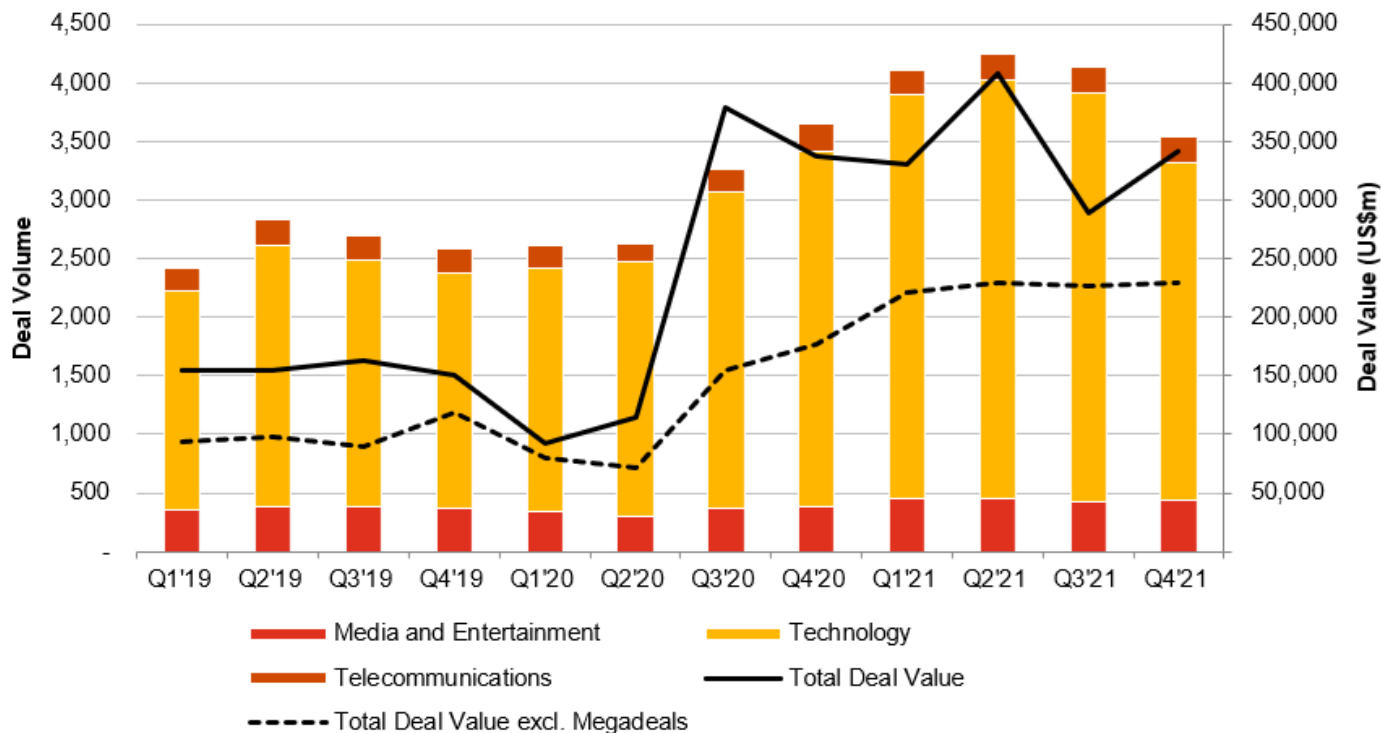
테크놀로지, 미디어 & 통신 산업 M&A

Technology, Media & Telecom, TMT



기술과 혁신에 따른 시장기회가 시장유동성과 맞물려 테크 분야 M&A, 급증세로 이어져

글로벌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 2019-2021 분기별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 **반도체 M&A** : 2021년 상반기 45조 달러의 거래금액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는 기업가치는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Renesas/Dialog, Skyworks/Silicon Labs, TSMC \$44B Budget).
- **스트리밍 및 게임** : OTT 스트리밍 서비스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플랫폼 런칭이 증가하고 있다(Take-Two/Zynga, Roblox IPO, ByteDance/Moonton).
- **Data 및 SaaS** : 데이터 및 이와 관련된 기업솔루션 분야에서 M&A가 증가하고 있다(Microsoft/Nuance, Okta/Auth0, Oracle/Cerna).
- **핀테크** :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소비재와 금융을 결합하여 기성 금융 기관들을 압도하고 있다. (MasterCard/Ekata, Equifax/AccountScore, Block/Afterpay)
- **통신사의 5G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 통신사들은 5G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하여 비 핵심분야 매각(AT&T/Warner/Discover, AT&T/DTV) 과 포트폴리오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Rogers/Shaw)

2021년 글로벌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TMT) Top 10 M&A

Top 10 Global TMT Deals, 2021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Warner Media LLC	 Discovery Inc	Corporate		65.3
2	 Grab Holdings Inc	 Altimeter Growth Corp	SPAC		34.3
3	 Cerner Corp	 Oracle Corp	Corporate		28.2
4	 Shaw Communications Inc	 Rogers Communications Inc	Corporate		21.9
5	 Athenahealth Inc	 Investor Group (Bain, ADIA, GIC and Hellman & Friedman)	PE		17.0
6	 Nuance Communications Inc	 Microsoft Corp	Corporate		16.4
7	 Telecom Italia SpA	 KKR & Co	PE		12.1
8	 The Rocket Science Group LLC (Mailchimp)	 Intuit Inc	Corporate		12.0
9	 McAfee Corp	 Investor Group (ADIA, Advent International, Crosspoint Capital, Permira, CPPIB and others)	PE		11.7
10	 Proofpoint Inc	 Thoma Bravo LLC	PE		11.1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e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 information)

 Technology  Media & Entertainment  Telecom

새로운 시장기회, 기술융합, 풍부한 유동성이 2022년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TMT) M&A의 높은 성장에 기여

2022년에도 글로벌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TMT)에서 활발한 M&A가 계속될 것이다.

산업의 성장과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음 3가지 트렌드가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TMT)의 M&A를 특징지을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산업간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혁신과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 기회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테크 기업의 놀라운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지배력 확장을 위해서 M&A를 통한 규모의 확장을 노리고 있다.

기술의 파괴적 혁신이 기술의 융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기술과 같은 기술들이 헬스케어, 광고, 자동차 및 은행 산업을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기술의 융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 테크 기반의 서비스나 제품은 기존 산업을 뛰어 넘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테크”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대기업을 자극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들에 대한 인수경쟁이 전 세계 M&A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풍부한 자금 유동성

차세대 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비용은 낮아지고 규모가 커져서 기업가치는 올라가고 펀딩에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의 펀딩 모델인 Pre-IPO는 이제 글로벌 추세가 되었다. 비상장 유니콘 기업과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2022년 이들을 대상으로 한 M&A 시장이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 미디어 및 통신 산업(TMT)의 주요 M&A 테마

1 기술테마

- 테크기업들 간 경쟁적 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 모든 산업에 걸쳐 생존과 경쟁을 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
- 급변하는 경제 및 소비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하는 기술



2 기술융합

- 전 산업에 걸쳐서 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술 간의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 미래의 기술은 이러한 기술의 융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3 Cash is King

- 금리상승에 따라 자금조달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 이에 따라 현금이 풍부한 기업을 중심으로 M&A가 이루어지게 될 전망



4 Media

- 미디어 분야는 2020년 170억 달러에서 2021년 1420억 달러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분야
-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M&A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22년 테크, 미디어, 통신(TMT) M&A Hotspot

가상자산



- 디지털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금융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M&A를 통해 핵심 비즈니스 강화 모색 중
- 여러 산업 분야에서 NFT(Non-Fungible Token)를 수익화 하여 핵심 사업분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2021년, 전년대비 2배에 이르는 600건의 기록적인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에는 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결제 애플리케이션 등 암호화폐 관련 IPO 및 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저장



- COP26에서 강조된 탄소 배출량 감축, ESG 중요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에너지 저장 기술산업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 특히 에너지 저장 분야는 기술, 자동차, 에너지 산업의 수요 증가로 투자 및 M&A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테크 분야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안 개발과 같은 고정 에너지 저장 분야 내 핵심적 산업 과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헬스 테크



- 기술 기반의 의료 및 웰빙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M&A 시도는 계속될 전망
- AI 기반 프론티어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및 생명 공학의 발전으로 가상 방문, 원격 의약품 배송, 개인 맞춤형 의료, 건강 및 운동 장비, 웨어러블 기기 및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헬스테크 기업들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 Apple, Google, Amazon, Oracle, Microsoft 등의 거대 테크 기업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 배송, 지불 및 의료 소비 부문을 개선함으로써 수조 달러 규모의 의료 산업 개편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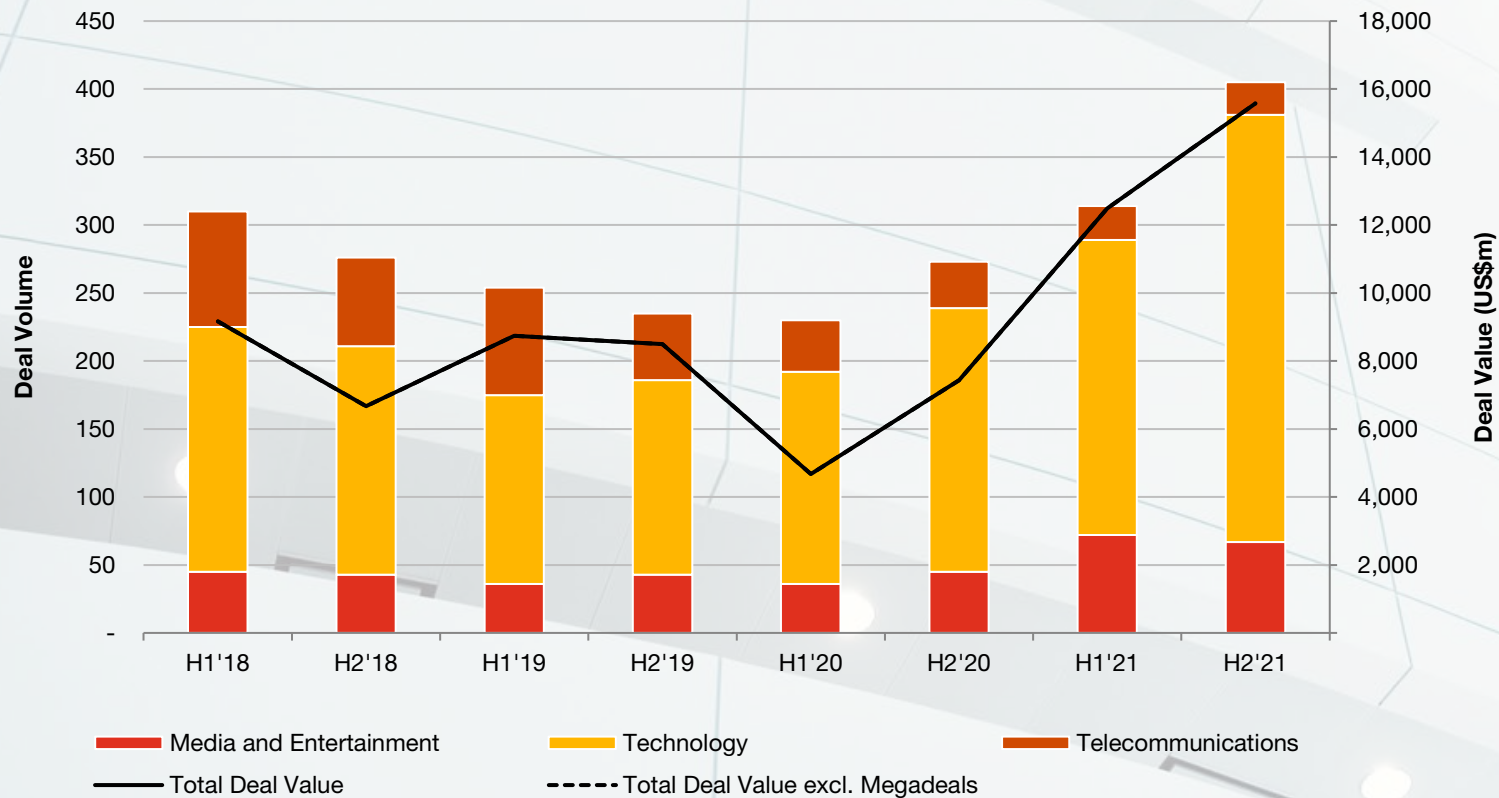
메타버스



-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AI),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및 연결 기기 개발 기업들이 매력적인 M&A 대상 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 빅테크, 미디어 대기업, 온라인 게임 회사 및 기타 혁신 기업들은 인프라 개발을 구체화하고 신형 디지털 생태계에서 시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메타버스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2021년 테크 분야 M&A,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

한국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TMT) M&A 거래건수 및 금액, 2018 - 2021 반기별



- 2021년 한국 TMT 산업의 M&A는 719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금액은 약 33조 원(USD 28,058m)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TMT 산업은 작년에 사상최대의 M&A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테크놀로지 분야의 M&A의 증가율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거래건수 기준 57%, 거래금액 기준 157% 성장하였다.
- 2021년 TMT 분야의 최대 M&A는 토종 동영상 채팅 앱 '아자르'와 '하쿠나라이브'를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 중인 국내 스타트업인 하이퍼커빅트가 지분 100%를 약 1조 9천 330억 원(USD 1,725m)에 미국 매치그룹에 매각한 것이다.
- 이외에도 소프트뱅크펀드로부터 야놀자의 투자유치 건(USD 1,700m, 약 2조원)과 온라인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USD 799m, 9000억원) 등이 TMT 산업 분야 M&A 상위에 올랐다.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플랫폼 화의 가속화에 따른 사모펀드의 적극 참여

- 기술의 플랫폼화 가속화에 따라 규모 확장 및 신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자금 확보 또는 증시 상승에 따른 IPO 이전 투자유치 거래 건이 증가하고 있다.
-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과 이에 따른 펀드간 경쟁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TMT 산업의 M&A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글로벌화에 따른 Cross border M&A 증가

- 한국의 플랫폼과 미디어, 콘텐츠의 질적 양적 증가는 글로벌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전개를 위하여 해외 기업에 대한 M&A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COVID-19로 인하여 다소 주춤했던 Cross border M&A 가 COVID-19의 완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될 것이다.

메타버스/NFT 등 신기술 영역

-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능한토큰)가 M&A 시장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부상했다. 메타버스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NFT 사업진출은 시작한 게임·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중심으로 M&A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 넥슨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꾸준히 투자해오면서 메타버스 경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엔씨는 글로벌 게임, IP, 콘텐츠 분야 M&A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며, 넷마블은 메타버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및 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며, 크래프톤은 인터랙티브 버추얼 월드 구현을 위하여 투자와 연구를 집중할 계획이다.
-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등도 NFT 및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확장하면서 미래형 플랫폼 선점을 위한 M&A는 활발히 발생할 것이다.
- NFT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신산업에 VC 및 신사업을 찾던 일반기업까지 가세하면서 메타버스/NFT 관련 M&A는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유니콘 기업들의 M&A 활발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은 18개이며, 두나무, 야놀자, 쏘카, 컬리, 직방, 당근마켓, 빗썸코리아, 리디 등 플랫폼·핀테크 기업이 다수이다.
- 플랫폼·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외 VC 등으로 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금 여력이 풍부해지면서, IPO 준비와 맞물려 규모 확장과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한 M&A를 더욱 활발하게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두나무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투자하며 메타버스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통 금융사들에게 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야놀자는 소프트뱅크의 2조원 투자 자금으로 여가 플랫폼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IT 기업으로 성장에 도움을 줄 기업들을 인수할 것이며, 쏘카와 마켓컬리도 22년 상반기 IPO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을 통해서 시장지배력 확대 및 영역 확장을 위한 M&A에 진행할 계획이다.

Contact us

유상수 파트너

Deal LoS Leader

02-709-0543

sang-soo.yoo@pwc.com

박대준 파트너

Deals Platform Leader

02-709-8938

dae-joon.park@pwc.com

김기은 파트너

금융 Deal

02-709-6485

gee-eun.kim@pwc.com

곽윤구 파트너

제조 및 자동차 산업 Deal

02-3781-2501

yun-goo.kwak@pwc.com

홍성표 파트너

제약 및 의료산업 Deal

02-709-0983

sungpyo.hong@pwc.com

서용태 파트너

에너지, 유틸리티 및 자원 산업 Deal

02-3781-2340

yong-tae.seo@pwc.com

이도신 파트너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 Deal

02-709-3321

do-shin.lee@pwc.com

이상은 **Managing Director**

삼일PwC경영연구원

02-709-6489

sangeun.lee@pwc.com

Thank you

www.samil.com

© 2022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